



通度寺 八相圖 研究

- 화기 해석을 중심으로 -

指導教授 정 병 모

이 論文을 석사학위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慶州大學校大學院

文化財學科 文化財專攻

梁 雲 奇

016757

梁雲奇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印

審査委員

印

審査委員

印

慶州大學校 大學院

2004年 12月



# 목 차

|                                       |     |
|---------------------------------------|-----|
| I. 머리말 .....                          | 1   |
| II. 通度寺 八相圖의 圖像과 畵師 .....             | 5   |
| 1. 畵題와 내용 .....                       | 5   |
| 2. 圖像 비교 .....                        | 19  |
| 3.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 .....                 | 25  |
| III. 통도사 팔상도 畵記의 典據와 畵風 .....         | 30  |
| 1. 화기의 典據(『釋氏源流』와 통도사 팔상도와의 관계) ..... | 33  |
| 2. 다른팔상도의 화기 .....                    | 37  |
| 3. 화기의 畵風 .....                       | 39  |
| 4. 畵記誤讀의 正正과 缺落부분의 推定復元 .....         | 44  |
| IV. 통도사 팔상도 畵記의 해석 .....              | 50  |
| 1. 第一 兜率來儀相 .....                     | 50  |
| 2. 第二 毘藍降生相 .....                     | 63  |
| 3. 第三 四門遊觀相 .....                     | 73  |
| 4. 第四 踰城出家相 .....                     | 84  |
| 5. 第五 雪山修道相 .....                     | 95  |
| 6. 第六 樹下降魔相 .....                     | 112 |
| 7. 第七 鹿苑轉法輪 .....                     | 124 |
| 8. 第八 雙林涅槃相 .....                     | 137 |
| V. 맺음말 .....                          | 150 |
| 참고문헌 .....                            | 155 |
| Abstract .....                        | 157 |

## 표 목차

|                                     |    |
|-------------------------------------|----|
| <표1> 『석씨원류』의 판본비교 .....             | 13 |
| <표2> 팔상관화 및 팔상도에 같은 장면이 나타난 예 ..... | 16 |
| <표3> 팔상도에 나타난 도상의 출전 .....          | 18 |
| <표4> 1775년 통도사 불화 작례표 .....         | 27 |
| <표5> ‘有誠’ 작례표 .....                 | 29 |
| <표6> 통도사 팔상도 화기의 수 .....            | 32 |
| <표7> 결락부분의 추정복원 일람표 .....           | 45 |

## 圖 版 목 차

|                                   |    |
|-----------------------------------|----|
| 圖 1 소아시토(『釋氏源流』 1673년) .....      | 19 |
| 圖 2 소아시토(통도사 1775년) .....         | 19 |
| 圖 3 소아시토(송광사 1725년) .....         | 21 |
| 圖 4 소아시토(쌍계사 1728년) .....         | 21 |
| 圖 5 차익환궁(용문사 팔상도-1709년) .....     | 22 |
| 圖 6 차익환궁(『석씨원류』 1673년) .....      | 23 |
| 圖 7 차익환궁(송광사 1725년) .....         | 23 |
| 圖 8 차익환궁(쌍계사 1728년) .....         | 24 |
| 圖 9 차익환궁(통도사 1775년) .....         | 24 |
| 圖10 차익환궁 화기(『석씨원류』, 1673년) .....  | 34 |
| 圖11 차익환궁 화기(통도사 팔상도, 1775년) ..... | 34 |

# I. 머리말

通度寺 八相圖는 1775년 (영조 51년) 抱冠·有誠 外 많은 畵師들이 제작한 18세기 후반 최대의 팔상도이다. 비단바탕에 彩色, 8폭으로 각 畵幅은 233.5 × 151cm로 現存最大作이며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하여 제작한다는 화기가 있지만<sup>1)</sup>, 통도사 靈山殿에 봉안되었다가 1990년 9월 20일 보물 제1401호로 지정되어 현재 통도사 성보박물관<sup>2)</sup>에 소장되어 있다<sup>3)</sup>.

팔상도는 불교의 敎祖인 釋尊<sup>4)</sup>의 생애에서 중요한 행적을 중심으로 압축 묘사하여 여덟 장면으로 표현한 불전도이다. 한 종교에 있어서 교조에 대한 전기는 그 가치와 의의에 있어서 교도들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그 종교에 대한 믿음과 신비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교조의 생애가 곧 교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종교의 목표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특히 불교에 있어서 교조인 釋迦牟尼佛의 생애에 대해서는 근본불교시대로 내려오면서 상당한 관심속에 미화되고 윤색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결국 일찍 인도에서부터, 석존 입멸후 2세기경의 조성된 불탑에서부터 많은 전기를 묘사하고 있으며 단편적인 불전도에서 석존의 생애 중에서 중요한 四大事(혹은 四大聖地)인 誕生, 成道, 轉

---

1) 통도사 팔상도 제1상 도솔내의상. 화기부분에 기록 된 내용의 일부분.

乾隆四十乙未七月二十日兜率來儀相造成奉安通度寺大雄殿

2)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

3) 대웅전에 소장한다는 내용에 대하여서는 대웅전의 구조상 액자형식으로 그려진 팔상도가 걸릴 만한 공간이 없고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대웅전이 오늘날의 영산전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한정호 「1792년 通度寺 掛佛幀 고찰」 『1792년 梁山 通度寺 掛佛幀』 영축총림, 통도사, 2003.10.

4) 팔상도에서 출가 전 태자의 모습과 성도하기 전까지의 보살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일반적인 불교의 敎祖인 석가모니부처님은 이하 釋尊이라 칭하기로 한다.

法,涅槃을 중심으로 많이 묘사되었음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후에 4대사(혹은 四相)를 더 첨가하여 8상으로 이루어졌다.

八相이 성립되는데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5)</sup>. 인도의 팔상은 인도의 불전도나 유물들로 보아 誕生-降魔成道-初轉法輪-大神變-從忉利天降下-醉象調伏-猿猴奉密-涅槃으로 四聖地 외에 初轉法輪이후의 네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팔상도는 대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降兜率-入胎-住胎-出胎-出家-成道-轉法輪-入滅이고, 다른 하나는 降兜率-入胎-出胎-出家-降魔-成道-轉法輪-入滅이다. 중국의 팔상은 인도와는 달리 초전법륜 이전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일본의 팔상은 중국과 대체로 유사하나 열반을 중점적으로 다루 팔상열반도라는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팔상도는 1447년에 판화로 제작된 『釋譜詳節』을 그 始原으로 볼 수 있고, 그 도상은 조선 후기에 모든 팔상도의 기본 도상이 되고 있음을 앞서 연구된 모든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 이후 17세기에 판각되어 전국에 유포된 『釋氏源流』은 200여개에 가까운 다양한 석존의 일생을 그 내용과 더불어 삽화를 제공함으로써 석존의 일생을 쉬운 그림으로 그려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고 하던 화사들에게 많은 도상을 제공하였다.

이후 18세기에는 가로로, 소형으로 제작되던 판화의 형식에서 벗어나 세로로, 대형으로 제작되면서 1709년 용문사를 시작으로 하여 18세기 전반기에는 운흥사, 송광사, 쌍계사등의 훌륭한 팔상도가 전라도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겸화파에 의하여 제작된다. 18세기 후반기에는 통도사의 팔상도가 앞서 제작된 팔상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석씨원류』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한 抱冠·有誠과 몇몇 화사에 의하여 경전과 삽화를 이해하고 재해석하여

---

5) 이영중 「조선시대 팔상도의 도상적 연원과 전개」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p 1~2 참조.

단순한 모방이 아닌 나름대로 독창적인 팔상도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 19세기부터 팔상도는 앞서 제작된 팔상도의 단순한 답습이나 모방수준으로 더 이상의 발전은 못하였으나 전국의 많은 주요사찰에 제작, 봉안함으로써 석존의 일생을 많은 대중에게 알리는데 기여를 하였다.

팔상도는 경전의 내용을 시차에 따르는 순서로 도해하였다고는 하나 그림만으로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그림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 화기란을 그림 옆에 마련하여 그림만으로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된 내용을 보충 설명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화기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아보는 것은 힘들었다. 특히 통도사의 팔상도는 지금까지 제작된 어떤 팔상도보다도 많은 화기를 담고 있다. 팔상도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화기가 서사되어 있지만, 원래 의도와는 달리 화기가 한문으로 되어 있어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sup>6)</sup> 그리하여 팔상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팔상도를 연구한 논문은 1984년에 조선후기 팔상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형식에 대하여 다룬 채태순의 「조선조 후기 팔상도 연구」, 1993년에 팔상도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모티프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다룬 서태현의 「朝鮮 後記 八相幀畵의 核心部分에 대한 研究」가 있다. 단독적으로 팔상도를 조사한 글로는 통도사 팔상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룬 홍윤식의 「通度寺의 八相圖」와, 이보다 앞선 1970년 송광사 팔상도를 조사한 최순우·정양모 공저의 「韓國의 佛敎繪畵 - 松廣寺」가 있다. 그러다 팔상도 도상적 연원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5년 이영종의 「조선시대 팔상도의 도상적 연원과 전개」가 발표되면서 도상의 연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제

6) 통도사팔상도 화기가 全載되어 있는 것은 다음의 책임.

홍윤식편, 『韓國佛畵 畵記集』 가람사연구소, 1995.

성보문화재연구소, 『韓國의 佛畵』 2. 1996.

공하였다.

비록 팔상도에 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지만, 조선후기 팔상도의 성립과 전개에서 가장 중요한 『월인석보』, 팔상관화를 연구한 박도화의 「初刊本 『월인석보』 八相版畵의 研究」, 앞의 월인석보의 팔상관화의 도상이 후기 팔상도의 기본도상이라면, 후기 팔상도 제작에 다양한 도상을 제공하여 팔상화 도상의 다양화와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釋氏源流』를 연구한 1998년 최연식의 「朝鮮後期『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등은 팔상도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sup>7)</sup>.

II장에서는 몇몇 도상의 비교를 통하여 첫째, 『석씨원류』가 통도사 팔상도의 도상과 화기에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간략히 검토하고 둘째, 통도사 팔상도만의 독특한 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 특히 화사 ‘有誠’에 관하여 간략하게나마 그의 화적을 살펴보겠다.

III장에서는 통도사 팔상도 화기의 典據를 화기의 대조 비교를 통하여 『釋氏源流』로 추정하고, 화기의 畵風도 살펴보려 한다. 박락 및 誤讀으로 인하여 잘못 알려져 있는 몇 글자도 이번 기회에 정정·복원해보려 한다.

IV장에서는 통도사 팔상도의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화기의 번역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 그 번역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화기를 해석하여 팔상도 연구 및 도상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본고에 나오는 모든 화기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화기를 좌측에 원색으로, 우측에는 흑백으로 실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 사진 다음에 화기의 내용을 바로 한문으로 옮겨서 誤記를 줄여보려고 하고 바로 아래에 혹은 화기의 오른쪽에 해석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후 통도사 팔상도나

---

7) 박도화, 「初刊本『月印釋譜』 팔상관화의 연구」, 書誌學研究 第24輯.

최연식, 「朝鮮後期『釋氏源流』의 수용과 불교계에 미친 영향」

『普照思想』 11집. 보조사상연구원.

혹은 화기의 내용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차후에 팔상도 연구에 밑거름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썼다.

## Ⅱ. 通度寺 八相圖의 圖像과 畫師

Ⅱ장에서는 통도사 팔상도를 각 相별로 畫題와 내용을 중심으로 구획하려 한다. 조선후기 팔상도의 제작에 畫師들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釋氏源流』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고 도상의 연원이 되는 경전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sup>8)</sup> 몇 장면의 도상비교를 통하여 도상의 전승이나 유사성, 혹은 통도사 팔상도만의 독특하거나 독창적인 도상을 찾아보려 한다. 화사편에서는 먼저 18세기 佛畵壇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 중에서 특히 ‘有誠’의 畵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畫題와 내용

통도사 팔상도는 8쪽으로 되어 있다. 각 쪽은 그 내용에 따라 4~5개의 장면으로 나누고자 한다. 대부분의 도상은 동일한 화제로 엮을 수 있었지만 몇 도상은 2 장면 이상을 하나의 화제에 두기도 하였다. 본고에서의 각 相에 나타나는 장면을 4~5개의 장면으로 구획하여 모두 35장면으로 구획하였다.<sup>9)</sup>

---

8) 『釋氏源流』라고 쓰는 것은 다음의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여기서는 『釋氏源流』로 쓰기로 한다.

『釋氏源流』는 제목도 다양한데 『釋迦如來應化錄』 『釋氏原流』 『釋迦如來應化事蹟』으로 변해왔다. 또 때에 따라서는 『釋氏源流應化事蹟』이라고 표제되기도 하였다'

최연식 앞의 책. P. 311참조.



그리고 각 장면마다 화제를 정하고자 한다. 그 화제는 주로 『석씨원류』에 나온 四字畫題를 위주로 하였다. 팔상도에서는 중요하게 도해되었으나 『석씨원류』에는 없는 장면의 화제는 그 장면의 내용과 가장 부합되거나 통상 알려진 내용을 사자화제로 하여 정하였다.

팔상도는 설화도이다. 석존의 전기나 전설, 혹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을 순서적으로 배열한 그림으로 그 내용을 경전이나 전생담의 시간상의 순서를 정하고 각 화제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 1) 각 장면의 제목과 그 내용<sup>10)</sup>

### 第一 兜率來儀相

- 1-1. 瞿曇貴姓 : 석가족의 조상인 瞿曇의 설화를 다루다.
- 1-2. 乘象入胎 : 일생일처보살에서 지상으로 흰코끼리를 타고 하강하다.
- 1-3. 摩耶託夢 : 도솔천에서 마야궁전의 마야부인에 입태하다.
- 1-4. 淨飯聖王 : 마야부인의 태몽을 들은 정반왕이 바라문을 불러 해몽을 듣는다

### 第二 毘藍降生相

- 2-1. 樹下誕生 : 룸비니동산에서 마야부인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자가 탄생하다.
- 2-2. 九龍灌浴 : 태자가 태어난 후 九龍이 물을 뿜어 목욕을 시키다.
- 2-3. 從園還宮 : 탄생후 태자일행이 정반왕궁으로 환궁하다.

9) 각 相은 여러 논문이나 글에서 보면 대체로 4장면에서 7장면까지 나누고 있는데 각 장면의 구획은 필자의 필요와 도상의 해석에 따른 것이며 절대장면의 수는 없다.

10) 각 장면의 앞의 수는 각 相의 수이며 다음의 수는 시차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의 수임.

- 2-4. 仙人占相 : 정반왕 앞에서 아사타선인이 전륜성왕이나 부처가 될 것이라고 관상을 보다.

### 第三 四門遊觀相

- 3-1. 路逢老人 : 동문에서 정거천이 변한 노인을 만나다.  
3-2. 道見病臥 : 남문에서 병자를 만나다.  
3-3. 路觀死屍 : 서문에서 시신을 메고 가는 장례행렬을 만나다.  
3-4. 得遇沙門 : 북문에서 사문을 만나고 출가에 대하여 깊이 사유하다.

### 第四 踰城出家相

- 4-1. 初啓出家 : 車匿에게 말을 준비시키고 출가하겠다는결심을 밝히다.  
4-2. 宮女昏睡 : 태자의 출가시 궁중의 모습이며 태자의 자리가 비어있다  
4-3. 夜半踰城 : 사천왕이 말발굽을 받쳐주고 한밤중에 성을 넘다.  
4-4. 車匿還宮 : 차익이 환궁하여 태자의 이모와 부인에게 태자가 이미 출가하였음을 고하다.

### 第五 雪山修道相

- 5-1. 金刀落髮 : 산림에서 스스로 삭발하고 정거천의 옷과 바꿔 입다.  
5-2. 勸請廻宮 : 교진여등 여러 대신들이 환궁하기를 보살에게 청하다.  
5-3. 禪河澡浴 : 보살이 목욕 후 나오려하자 마왕이 방해하고 목욕한 후에 그 물을 제천들이 다투어 떠가다.  
5-4. 六年苦行 : 보살이 설산에서 6년 간 고행을 하다.

### 第六 樹下降魔相

- 6-1. 魔女睨媚 : 마왕의 세 딸이 수행중인 보살을 유혹하려 하였으나

실패하고 추한 노파가 되어 도망가다.

6-2. 魔軍拒戰 : 마왕이 보살을 위협하려고 마군을 이끌고 보살에게 가다.

6-3. 魔衆拽鉗 : 보살 앞에 있는 물병을 마군이 움직이려 하나 꿈쩍도  
않자 마군이 무너지다.

6-4. 地神作證 : 보살이 부처가 되었음을 지신이 땅에서 솟아 나와 이미  
부처가 되었음을 증명하다.

6-5. 成等正覺 : 보살이 드디어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다.

## 第七 鹿苑轉法輪

7-1. 華嚴大法 : 정각 후 노사나불로 化하여 석존이 화엄경을 설하시다.

7-2. 轉妙法輪 : 녹야원에서 교진여등 5인에게 사체법을 처음으로 설하시다.

7-2. 小兒施土 : 석존이 걸식 중에 만난 아이들이 흙 쌀을 보시하여 후에  
국왕으로 태어나서 탑을 세우리라는 수기를 하다.

7-4. 初建戒壇 : 비구, 비구니등의 결계와 수계를 위하여 단을 만들다.

7-5. 布金買地 : 수달장자가 땅을 석존을 위하여 땅을 매입하고 지타태자와  
함께 기림정사를 건립하여 보시하다.

## 第八 雙林涅槃相

8-1. 雙林涅槃 :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드시다.

8-2. 凡火不然 : 다비를 하려 하였으나 세간의 불로서는 불이 붙지 않는다.

8-3. 佛示雙足 : 늦게 도착한 가섭을 위하여 관속에서 발을 내미시다.

8-4. 舍利收拾 : 다비 후에 부처님의 사리를 수습하다.

8-5. 舍利均分 : 다비 후 팔대국왕이 사리를 나누어 갖다.

위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장면구획 및 설화의 진행순서를 도식으로 표현  
하면 다음과 같다.

## 2) 장면구획도

第一 兜率來儀相

|             |             |
|-------------|-------------|
| 1-1<br>瞿曇貴姓 | 1-2<br>乘象入胎 |
| 1-3<br>摩耶託夢 | 1-4<br>淨飯聖王 |

第二 毘藍降生相

|             |             |
|-------------|-------------|
| 2-2<br>九龍濯浴 | 2-1<br>樹下誕生 |
| 2-3<br>從園還宮 | 2-4<br>仙人占相 |

第三 四門遊觀相

|             |             |
|-------------|-------------|
| 3-4<br>得遇沙門 | 3-1<br>路逢老人 |
| 3-3<br>路觀死屍 | 3-2<br>道見病臥 |

第四 踰城出家相

|             |             |
|-------------|-------------|
| 4-3 夜半踰城    |             |
| 4-4 車匿還宮    |             |
| 4-2<br>宮女昏睡 | 4-1<br>初啓出家 |

第五 雪山修道相

|             |             |
|-------------|-------------|
| 5-3<br>禪河澡浴 | 5-4<br>六年苦行 |
| 5-2 勸請廻宮    |             |
| 5-1 金刀落髮    |             |

第六 樹下降魔相

|             |             |
|-------------|-------------|
| 6-4<br>地神作證 | 6-5<br>成等正覺 |
| 6-3 魔衆拽鉗    |             |
| 6-1<br>魔女炫耀 | 6-2<br>魔軍拒戰 |

第七 鹿園轉法相

|                 |                 |                 |
|-----------------|-----------------|-----------------|
| 7-1 華嚴大法        |                 |                 |
| 7-5<br>布金<br>買地 | 7-4<br>初建<br>戒壇 | 7-2<br>轉妙<br>法輪 |
|                 |                 | 7-3<br>小兒<br>施土 |

第八 雙林涅槃相

|             |             |
|-------------|-------------|
| 8-4<br>舍利收拾 | 8-5<br>舍利均分 |
| 8-3<br>佛示雙足 | 8-2<br>凡火不然 |
| 8-1<br>雙林涅槃 |             |

이상 각 相을 4개에서 5개의 장면으로 구획하여 모두 35개의 장면으로 나누었다.

팔상도에 나타나고 있는 석존의 일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태자의 모습, 둘째, 구도자의 모습을 하고 있는 보살로서의 모습, 그리고 셋째, 성도를 하고 난 후의 부처의 모습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여

- (1) 태자의 모습은 1-1. 瞿曇貴姓부터 5-1. 金刀落髮장면까지 17장면,
- (2) 求道者의 모습인 보살의 모습은 5-2. 勸請還宮부터 6-4. 地神作證까지의 7장면,
- (3) 부처의 모습은 6-5. 成等正覺에서 8-5. 舍利均分까지 11장면으로 모두 35개의 장면으로 구획하였다.

즉 출가까지의 장면이 17장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성도 후의 전법에 서 열반까지 11장면, 구도하는 장면이 7장면으로 나타났다.

통도사 팔상도의 장면구획도에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팔상도의 장면 이동 순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간다(右繞)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도사 팔상도인 경우도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대체로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많지만 반드시 오른쪽으로 돌아가도록 의도적으로 배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화면을 상단, 중단, 하단으로 3등분할 때 상단부, 즉 윗부분에 도해하는 장면의 내용은 대체로 인간의 세계가 아닌 부처의 세계를, 시간적으로 보다면 과거의 일<sup>11)</sup>을, 공간적으로는 멀고 높은 곳<sup>12)</sup>, 즉 하늘이나 높은 산등을 의도적으로 배치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화사들이 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부처님과 그 일생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모시려는 깊은 신앙심에

---

11) 1-1. 瞿曇貴姓이 대표적인 例임

12) 4-3 夜半踰城, 5-4 六年苦行, 6-5成等正覺, 등이 그 예임

서 나온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제2상인 비람강생상은 아래에서 보듯이 통도사의 독특한 배치를 볼 수 있다. 1725년작 송광사 팔상도와 대부분이 팔상도는 상단부분에 구룡관욕과 선인점상을 배치하고 있지만 통도사 팔상도는 수하탄생과 구룡관욕을 윗부분에 배치시키고 있다<sup>13)</sup>. 선인점상 장면보다는 수하탄생 장면을 상단에 높여 그려놓은 이러한 구성 역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人的 세계’보다는 ‘佛의 세계’를 높이 모시려 했던 통도사의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의 의도적인 배려일 것으로 추정한다.

第二 毘藍降生相(松廣寺)

|          |          |
|----------|----------|
| 2-4 仙人占相 | 2-2 九龍灌浴 |
| 2-3 從園還宮 | 2-1 樹下誕生 |

第二 毘藍降生相(通度寺)

|          |          |
|----------|----------|
| 2-2 九龍灌浴 | 2-1 樹下誕生 |
| 2-3 從園還宮 | 2-4 仙人占相 |

다음은 우리나라 팔상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釋譜詳節』과 『釋氏源流應化事蹟』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후에 도상의 출현 및 이후 팔상도에 계승·확산되고 있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팔상도의 효시라 볼 수 있는 예는 1447년 왕실발원으로 판화로 제작된 『釋譜詳節』의 팔상도이다. 그리고 팔상을 서술하고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우리나라 문헌 역시 『석보상절』이다<sup>14)</sup>.

13) 1728년 제작된 쌍계사의 팔상도는 통도사와 같은 구도임.

부처가 三界의 높으신 분이 되어 계셔서 衆生을 널리 濟度하시니, 그지없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이 사람들과 하늘들이 내내 기리지 못하옵는 바이다. 세상에서 부처의 도리를 배울 사람들이, 부처님이 나서 행동하시며 가만이 계시던 처음과 끝마침을 알 사람이 드무니, 비록 알고자 하는 사람이라도 또한 八相을 넘지 않고서 만다. 이즈음에 소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지금까지 전하는 여러 불경에서 가려내어 따로 한 글을 만들어 이름 붙이기를 석보상절이라 하고, 이미 차례를 헤아려 만든 바에 따라서 세존이 도를 이루신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아서 三寶에 나아가 귀의하게 되기를 바란다<sup>15)</sup>.

라 하고, '八相은 兜率來儀, 毘藍降生, 四門遊觀, 踰城出家, 雪山修道, 樹下降魔, 鹿苑轉法, 雙林涅槃이라'고 주석되어 있다.

『月印釋譜』의 팔상판화는 우리나라 현존 最古의 팔상도이고, 그 도상이 조선 후기 팔상도로 계승·발전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팔상도 도상의 淵源이 되는 작품이다<sup>16)</sup>. 하지만 이곳에 판각된 내용들은 판화라는 특수성과 한정된 공간에 석존의 많은 설화 내용을 담을 수 가 없었을 것이다<sup>17)</sup>.

『석보상절』이 간행된 1447년은 안견이 <몽유도원도>를 그린 해이기도 하다. 한편 안견은 세종 16년(1434년) 간행된 <삼강행실도>의 밑그림을 그렸다고 추정되고 있는데<sup>18)</sup> 팔상판화와는 같은 시대의 작품이어서, 당시 최고의 작가로 인정받고 있는 그가 어쩌면 팔상판화의 밑그림을 그렸을지도 모른다고 추정될 정도로, 『석보상절』의 판각의 솜씨는 뛰어나다고 할 수

14) 이영종, 앞의 책 참조

15) 이 현대역은 金英培 編譯, 『釋譜詳節』上(동국대학교 역경원, 1986) p.32에서 인용하여 全載한 것임.

16) 박도화, 「初刊本『月印釋譜』八相版畫의 研究」書誌學研究 第24輯 p.250 참조

17) 박도화 앞의 책, 『월인석보』 팔상도의 크기는 각각 21.7cm×32.2cm이며 『석보상절』 팔상도의 크기도 이와 거의 동일하다. p.251 참조

18) 정병모, 「『삼강행실도』 판화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진단학회, 1998, 6)

있다<sup>19)</sup>.

『釋氏源流』는 이름부터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釋氏), 혹은 불교의 敎祖인 석존(釋氏)의 근원(源)과 흐름(流)을 서술했다는 뜻이다.<sup>20)</sup> 석존의 근원과 그 종교의 흐름을 밝혀 불교도들에게 쉬운 내용으로 석존의 일생을 보여주고 신심을 유발시켜야 할 그림인 팔상도를 그려야 할 화사들에게 『석씨원류』의 다양한 삽화들은 좋은 텍스트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씨원류』는 선운사판과 불암사판이 있으나 보통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도상은 역시 불암사판이라 하겠다. 둘 다 명나라 책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서로 다른 형태와 체제를 갖춘 것은 각각의 저본이 된 중국판 석씨원류가 달랐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간행된 석씨원류의 판본을 비교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 1. 『석씨원류』의 판본비교

| 판본   | 형태            | 간행 연도 | 明憲宗 御製序 | 王勃의 成道記 | 내용                 | 현재의 목판                  |
|------|---------------|-------|---------|---------|--------------------|-------------------------|
| 선운사판 | 위-삽화<br>아래-내용 | 1648년 | 있음      | 없음      | 16자<br>18행<br>288자 | 110매 중<br>52매           |
| 불암사판 | 우-삽화<br>좌-내용  | 1673년 | 있음      | 있음      | 24자<br>12행<br>288자 | 212판<br>결락 없음<br>동국대도서관 |

19) 박도화, 앞의 책, p. 273.

20) 『釋氏源流』가 조선후기 팔상도에 미친 영향과 설명은 최연식 「朝鮮後期 『釋氏源流』의 수용과 佛敎界에 미친 영향」 『普照思想』 11집, 보조사상연구원,을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석존의 근원과 그 종교의 흐름을 밝혀 불교도들에게 쉬운 내용으로 석존의 일생을 보여주고 신심을 유발시켜야 할 그림인 팔상도를 그려야 할 화사들에게 『석씨원류』의 다양한 삽화들은 좋은 텍스트가 되었음에 틀림없었을 것이다. 판화로 제작되어 전국적으로 널리 유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73년에 제작된 불암사판 『석씨원류』는 권1과 권2의 200화제 중에서 석존과 직접 관련된 것이 모두 189화제나 되어, 석보상절의 기본도상에 보다 많은 도상을 더 제공하여 팔상도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 주었을 것임에 확실하다<sup>21)</sup>.

그러나 1709년에 제작된 용문사 팔상도는 앞서 제작된 판화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화면이 커져 다양한 석존의 일생을 화폭에 담을 수 있었는데 그 도상은 각 相별로 몇 장면씩을 『석씨원류』의 삽화를 모본으로 하여 그렸다. 용문사의 팔상도는 판화로, 가로로 제작 되어진 팔상도를 채색화로, 세로의 대형화면으로, 석존의 일생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과도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제작된 모든 팔상도에서는 다음의 표에서 보듯이 팔상도에 따라서 한 두 장면의 가감이 있을 뿐 동일한 화제들을 다 담고 있다.<sup>22)</sup>

즉 우리나라 팔상도는 『석보상절』 팔상판화가 기본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본 도상에다 『석씨원류』의 다양한 도상이 첨가되어 18세기,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조선후기 팔상도를 이루었다.

18세기 이르러 채색화로, 세로의 대작으로 비로소 제작된 용문사 팔상도는 『석씨원류』에 나타나는 다양한 삽화를 팔상도에 도입하였다. 1709년에 제작된 용문사 팔상도는 그 다양한 내용을 화려한 彩色으로, 가로로 제작되어온 팔상도를 세로의 대작으로 제작하게 되어 보다 넓은 공간을 제공하게 되어 다양한 내용을 그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18세기 초기의 이 작

---

21) 이영종 앞의 책. p.19. p.73참조

22) 1728년작 쌍계사 팔상도의 경우 제7상에 녹왕전설이 도해되어 있다.

품은 앞선 시기의 관화중심의 팔상내용을 이후 팔상도의 정형이 이루어지는 1725년의 송광사의 팔상도로 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으로 큰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725년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팔상도에서는 송광사 팔상도의 모든 화제를 다 담아내고 있어서 조선 후기 팔상도의 정형이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통도사 팔상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보고 그린 듯 모방에 치우쳐 더 이상의 발전은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각 화제들이 팔상관화와 팔상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만들었다. 각 장면은 우리나라 팔상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1447년의 『석보상절』, 17세기에 제작되어 후대 모든 팔상도의 다양한 도상제공을 한 『석씨원류』, 18세기 본격적인 최초의 팔상도인 1709년작 용문사 팔상도, 18세기 전반의 대표작인 송광사와 쌍계사의 팔상도, 18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팔상도인 통도사 팔상도와 20세기에 도해진 근대의 삼보사찰 해인사의 팔상도까지 비교하기로 하였다. 동일한 화제로 도해되어진 도상은 다음과 같다.

표 2. 팔상관화 및 八相圖에 같은 장면이 나타난 例

| 八相名         | 畫題   | 석보상절 | 석씨원류 | 용문사        | 송광사 | 쌍계사 | 통도사 | 해인사 |
|-------------|------|------|------|------------|-----|-----|-----|-----|
| 第一<br>兜率來儀相 | 瞿曇貴姓 |      | ○    |            | ○   | ○   | ○   | ○   |
|             | 乘象入胎 | ○    | ○    | ○          | ○   | ○   | ○   | ○   |
|             | 摩耶託夢 | ○    | ○    | ○          | ○   | ○   | ○   | ○   |
|             | 淨飯墾土 |      | ○    | ○          | ○   | ○   | ○   | ○   |
| 第二<br>毘藍降生相 | 樹下誕生 | ○    | ○    | ○          | ○   | ○   | ○   | ○   |
|             | 九龍灌浴 | ○    |      | ○          | ○   | ○   | ○   | ○   |
|             | 從闍環宮 |      | ○    |            | ○   | ○   | ○   | ○   |
|             | 仙人占相 |      | ○    |            | ○   | ○   | ○   | ○   |
| 第三<br>四門遊觀相 | 路逢老人 | ○    | ○    | ○          | ○   | ○   | ○   | ○   |
|             | 道見病臥 | ○    | ○    | ○          | ○   | ○   | ○   | ○   |
|             | 路觀死屍 | ○    | ○    | ○          | ○   | ○   | ○   | ○   |
|             | 得遇沙門 | ○    | ○    | ○          | ○   | ○   | ○   | ○   |
| 第四<br>踰城出家相 | 初啓出家 | ○    | ○    | ○          | ○   | ○   | ○   | ○   |
|             | 宮女昏睡 | ○    |      | ○          | ○   | ○   | ○   | ○   |
|             | 夜半踰性 | ○    | ○    | ○          | ○   | ○   | ○   | ○   |
|             | 巾匿還宮 |      | ○    | 철산승도<br>상애 | ○   | ○   | ○   | ○   |
| 第五<br>雪山修道相 | 金刀落髮 | ○    | ○    | ○          | ○   | ○   | ○   | ○   |
|             | 勸請廻宮 |      | ○    | ○          | ○   | ○   | ○   | ○   |
|             | 遠餉資糧 |      | ○    | ○          | ○   | ○   | ○   | ○   |
|             | 禪河澡浴 | ○    | ○    | ○          | ○   | ○   | ○   | ○   |
|             | 六年苦行 | ○    | ○    | ○          | ○   | ○   | ○   | ○   |
| 第六<br>樹下降魔相 | 魔軍拒戰 |      | ○    | ○          | ○   | ○   | ○   | ○   |
|             | 魔女婬媚 |      | ○    | ○          | ○   | ○   | ○   | ○   |
|             | 魔衆拽鉗 | ○    | ○    | ○          | ○   | ○   | ○   | ○   |
|             | 地神作證 | ○    | ○    | ○          | ○   | ○   | ○   | ○   |
|             | 成等正覺 | ○    | ○    | ○          | ○   | ○   | ○   | ○   |
| 第七<br>鹿苑轉法相 | 轉妙法輪 | ○    | ○    | ○          | ○   | ○   | ○   | ○   |
|             | 小兒施土 |      | ○    | ○          | ○   | ○   | ○   | ○   |
|             | 初建戒壇 |      | ○    | ○          | ○   | ○   | ○   | ○   |
|             | 布金買地 |      | ○    | ○          | ○   | ○   | ○   | ○   |
|             | 華嚴大法 | ○    | ○    | ○          | ○   | ○   | ○   | ○   |
| 第八<br>雙林涅槃相 | 雙林入滅 | ○    | ○    | ○          | ○   | ○   | ○   | ○   |
|             | 佛示雙足 |      | ○    | ○          | ○   | ○   | ○   | ○   |
|             | 凡火不然 |      | ○    | ○          | ○   | ○   | ○   | ○   |
|             | 舍利收拾 |      |      |            | ○   | ○   | ○   | ○   |
|             | 舍利均分 |      | ○    | ○          | ○   | ○   | ○   | ○   |

#### 4) 팔상도에 표현된 도상의 출전

도상표현의 다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의경전과의 대조작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모든 불화는 소의경전을 근본으로 하여 제작이 되고 팔상도 역시 소의경전을 근본으로 하여 제작이 되었다. 팔상도의 연원에 대하여서는 이영종의 앞의 책 「조전시대 팔상도의 도상적 연원과 전개」에서 이미 깊이 있는 선행연구가 되어 있다. 여기서는 각 도상의 연원을 『석씨원류』에서 밝혀 놓고 있는 경전명을 밝히고 표를 만들었다.

『석씨원류』에서는 각 화제마다 소의경전을 밝히고 있다. 다음의 표는 이를 참조하여 작성한 것인데, 『석씨원류』는 다양한 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도까지의 과정은 『(佛)本行經』과 『因果經』, 『大莊嚴經』이, 성도 이후는 『賢愚經』 등이, 열반의 과정은 『涅槃經』이 주로 인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釋迦譜』나 『華嚴經』을 소의경전으로 한 도상은 각각 1도상에 불과한 것도 있지만 佛本行經은 11도상, 莊嚴經은 7도상의 소의경전이 되고 있다. 2-2 九龍灌欲은 『석씨원류』에 따로 장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樹下誕生에 있어서 本行經으로 분류를 하였고 8-4 舍利收拾은 『처태경』으로 분류를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석씨원류』 권1과 권2에는 소의경전을 살펴보면 『釋迦譜』, 『(佛)本行經』 등 총 61종이 인용되고 있는데 이들 중에 빈도수가 높은 것이 『(佛)本行經』 33회, 『因果經』 15회, 『莊嚴經』 14회, 『賢愚經』 11회, 『涅槃經』 10회, 『法句經』 9회, 『付法藏經』 7회, 『經律異相』 7회등으로 이들 8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23)</sup>

---

23) 최연식 앞의 책 p.318참조.

표 3 팔상도에 나타난 圖像의 出典 (『釋氏源流』의 내용을 중심으로)

| 八相名         | 畫題   | 석가보 | 불본행집경 | 인과경 | 본행경 | 장엄경 | 보요경 | 잡보장경 | 계단도경 | 현우경 | 화엄경 | 열반경 | 처태경 |
|-------------|------|-----|-------|-----|-----|-----|-----|------|------|-----|-----|-----|-----|
| 第一<br>兜率來儀相 | 瞿曇貴姓 | ○   |       |     |     |     |     |      |      |     |     |     |     |
|             | 乘象入胎 |     |       | ○   |     |     |     |      |      |     |     |     |     |
|             | 摩耶託夢 |     |       | ○   |     |     |     |      |      |     |     |     |     |
|             | 淨飯聖王 |     |       |     | ○   |     |     |      |      |     |     |     |     |
| 第二<br>毘藍降生相 | 樹下誕生 |     |       |     | ○   |     |     |      |      |     |     |     |     |
|             | 九龍灌浴 |     |       |     | ○   |     |     |      |      |     |     |     |     |
|             | 從園環宮 |     |       |     | ○   |     |     |      |      |     |     |     |     |
|             | 仙人占相 |     |       |     | ○   |     |     |      |      |     |     |     |     |
| 第三<br>四門遊觀相 | 路逢老人 |     |       |     | ○   |     |     |      |      |     |     |     |     |
|             | 道見病臥 |     |       |     | ○   |     |     |      |      |     |     |     |     |
|             | 路觀死屍 |     |       |     | ○   |     |     |      |      |     |     |     |     |
|             | 得遇沙門 |     |       |     |     | ○   |     |      |      |     |     |     |     |
| 第四<br>踰城出家相 | 初啓出家 |     |       |     |     | ○   |     |      |      |     |     |     |     |
|             | 宮女昏睡 |     |       |     |     | ○   |     |      |      |     |     |     |     |
|             | 夜半踰城 |     |       |     |     | ○   |     |      |      |     |     |     |     |
|             | 車匿還宮 |     |       |     |     | ○   |     |      |      |     |     |     |     |
| 第五<br>雪山修道相 | 金刀落髮 |     |       |     |     | ○   |     |      |      |     |     |     |     |
|             | 勸請廻宮 |     |       | ○   |     |     |     |      |      |     |     |     |     |
|             | 禪河澡浴 |     |       |     |     | ○   |     |      |      |     |     |     |     |
|             | 六年苦行 |     |       |     |     |     | ○   |      |      |     |     |     |     |
| 第六<br>樹下降魔相 | 魔女炫耀 |     |       |     | ○   |     |     |      |      |     |     |     |     |
|             | 魔軍拒戰 |     |       |     | ○   |     |     |      |      |     |     |     |     |
|             | 魔衆拽鉗 |     |       |     |     |     |     | ○    |      |     |     |     |     |
|             | 地神作證 |     |       |     | ○   |     |     |      |      |     |     |     |     |
| 第七<br>鹿苑轉法相 | 成等正覺 |     |       |     |     |     | ○   |      |      |     |     |     |     |
|             | 華嚴大法 |     |       |     |     |     |     |      |      |     | ○   |     |     |
|             | 轉妙法輪 |     |       | ○   |     |     |     |      |      |     |     |     |     |
|             | 小兒施土 |     |       |     |     |     |     |      |      | ○   |     |     |     |
| 第八<br>雙林涅槃相 | 初建戒壇 |     |       |     |     |     |     |      | ○    |     |     |     |     |
|             | 布金買地 |     |       |     |     |     |     |      |      | ○   |     |     |     |
|             | 雙林涅槃 |     |       |     |     |     |     |      |      |     |     | ○   |     |
|             | 凡火不然 |     |       |     |     |     |     |      |      |     |     | ○   |     |
|             | 佛示雙足 |     |       |     |     |     |     |      |      |     |     |     | ○   |
|             | 舍利收拾 |     |       |     |     |     |     |      |      |     |     |     | ○   |
|             | 舍利均分 |     |       |     |     |     |     |      |      |     |     |     | ○   |

## 2. 圖像 비교

통도사 팔상도의 小兒施土와 車匠還宮장면과 『석씨원류』 도상과 비교를 통하여 그 도상의 수용관계를 살펴보고 다음은 다른 팔상도도상과의 비교를 통하여 도상의 전승과 유사성, 혹은 통도사 팔상도만의 특징적인 점을 살펴 보도록 하겠다.

### 1) 小兒施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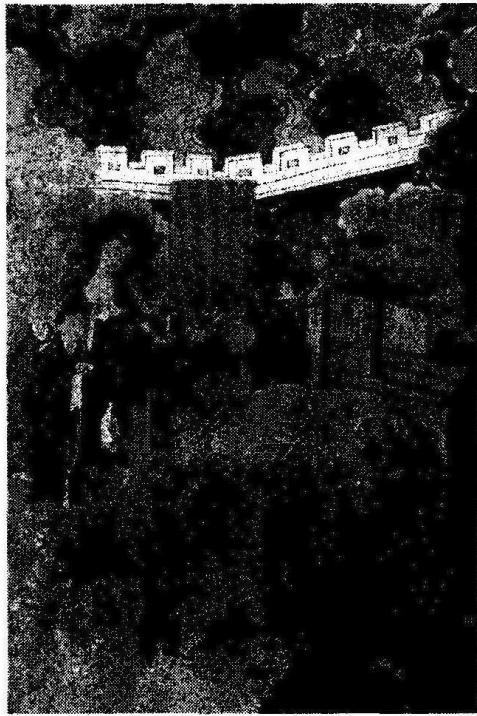
〈圖 1〉 소아시토  
(『釋氏源流』 1673년)



〈圖 2〉 소아시토  
(통도사 1775년)

먼저 〈圖 1〉의 『석씨원류』의 소아시토의 도상과 〈圖 2〉 통도사 팔상도의 소아시토장면을 비교하여 보면, 『석씨원류』과 통도사 팔상도의 소아시토 장면은 제작시기가 약 100년의 시차가 있음에도 매우 유사한 점들이

발견된다. 위의 장면은 좌측에 서있는 석존의 모습이 『석씨원류』에는 거의 등신대로 표현되어 있는 반면에 통도사 팔상도에는 약간은 과장된 모습으로 크게 묘사되어있다. 이 차이를 제외하고는 구도도 같고 석존과 그 권속을 제외하면 인물의 숫자도 아이들이 7명이며, 그 7명의 아이들의 취하고 있는 자세 역시 매우 비슷하다. 아이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흙으로 된 탑 역시 매우 비슷하게 표현이 되어있다. 통도사 팔상도 소아시토장면에 도해진 이 탑은 앞서 제작된 어느 팔상도에 도해진 탑보다도 『석씨원류』에 도해진 탑과 가장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인 구도와 아이들의 숫자, 그리고 자세까지 같다는 것까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그 사이에 후대 팔상도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팔상도가 제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두 도상은 가장 비슷하게 그려져 있다. 통도사 팔상도 도상의 대부분은 앞서 제작된 팔상도의 도상들을 참고하여 그렸겠지만 몇 장면은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은 앞서 제작된 팔상도의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석씨원류』의 화기의 내용과 도상을 깊이 연구하여 앞서 제작된 팔상도와는 다른 통도사의 팔상도를 제작하였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예는 〈소아시토〉의 장면과 〈차익환궁〉의 장면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다.



〈圖 3〉 소아시도  
(송광사 1725년)



〈圖 4〉 소아시도  
(쌍계사 1728년)

1725년 제작된 송광사 〈圖 3〉의 도상과 3년 후인 1728년에 쌍계사 〈圖 4〉에서 제작된 2개의 장면을 비교하여보면 이 2개의 도상 역시 매우 유사하다. 송광사와 쌍계사의 도상의 유사성에도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겠다. 이 두 사찰은 거리상으로도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에게 있을 것이다. 1725년 송광사 팔상도를 제작한 경험이 있는 最佑도 쌍계사 팔상도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은 유사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 2) 車匿還宮의 장면

차익환궁장면은 석보상절에는 없는 도상이다. 『석씨원류』에 판각되었던



내용을 1709년작 용문사 팔상도에서 처음으로 도해가 되었고, 이후에는 모든 팔상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장면은 태자로서의 석존의 마지막 모습으로 부모와 자식간의 정, 부부의 정등이 나타나 인간의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불화에서 보기 드물게 인간의 다양한 감정, 즉 諦念, 叱責, 怨望, 驚歎 등이 잘 나타나 있는 생동감이 있는 장면이라 하겠다<sup>24)</sup>.



〈圖 5〉 차익환궁 (용문사 팔상도- 1709년)

위 장면은 우리나라 팔상도의 도상에 맨 처음으로 등장하는 1709년작 용문사 차익환궁의 장면인데 여기서는 제5 설산수도상에서 나타나지만 그 이후에 제작되는 모든 팔상도에서는 한결같이 제4 유성출가상으로 옮겨져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설화의 전개순서로 보면 차익환궁 장면은 금도낙발 다음에 오는 것이 당연하여 제5 설산수도상에 배치시키는 것이 맞지만 설산수도상은 배경이 대부분이 설산과 산림인데 산림안에 궁전을 도해한다는 것은

24) 최순우·정양모 「韓國의 佛教繪畵 松廣寺」 국립박물관 특별조사보고 제3책 P.54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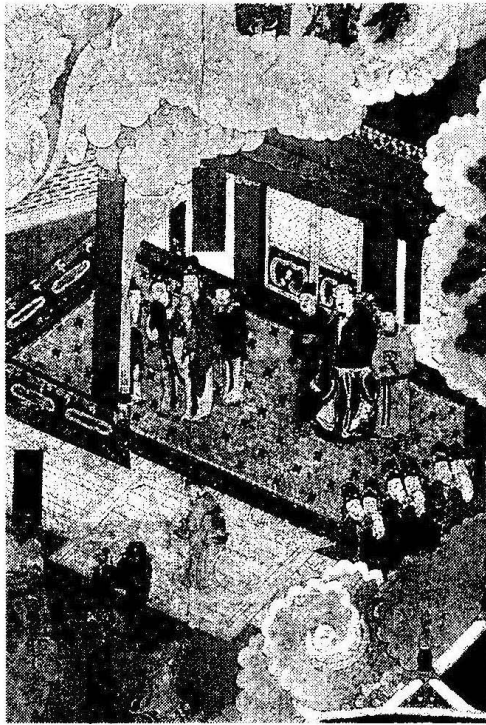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고 1725년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팔상도에서는 第四 유성출가상으로 옮겨 도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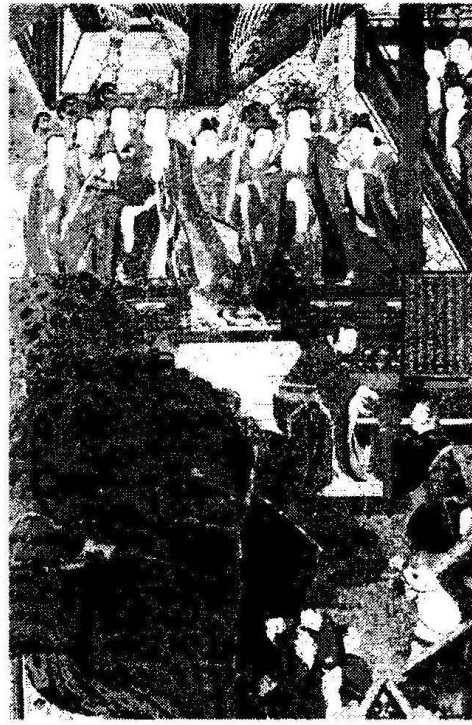
〈圖 6〉 차익환궁  
(『석씨원류』 1673년)



〈圖 7〉 차익환궁  
(송광사 1725년)



〈圖 8〉 차익환궁  
(쌍계사 1728년)



〈圖 9〉 차익환궁  
(통도사 1775년)

차익환궁장면의 도상을 송광사와 쌍계사, 혹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팔상도의 도상과 비교해보면 용문사와 통도사의 차익환궁에서만은 정반왕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처음으로 도해된 용문사의 경우는 『석씨원류』의 판화 내용을 모본으로 하여 도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통도사의 경우에는 이보다 앞서 제작된 팔상도에는 왼쪽을 향하여 앉아있는 정반왕의 모습이 도해되어 있지만 통도사의 팔상도에는 오른쪽을 향하여 서 있는 이모와 태자비를 도해하고 있다.

『석씨원류』 판화의 부분에도 의자에 앉아 있는 정반왕이 모습이 없어 통도사의 팔상도는 『석씨원류』의 도상을 충실하게 모본으로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화기 내용에도 역시 정반왕을 일컫는 내용이 없어 경전의 내용을 충

실하고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차익이 환궁하면서 가지고 온 태자의 의복등을 왕비, 혹은 정반왕께 계단에 서서 바치고 있는 인물상은 『석씨원류』에는 없는 인물상이만 통도사 팔상도에는 나타나고있다. 앞서 제작된 송광사, 쌍계사제작 팔상도처럼 통도사 팔상도는 이 인물을 도해하고 있다. 이는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은 앞서 제작된 팔상도를 참고하여 도해 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나름대로 재해석하여 그려 넣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반왕이 제외되고 서있는 태자의 이모와 태자비의 모습만이 도해진 것은 『석씨원류』에 매우 충실하려 했던 제작이면서도 계단에 서 있는 인물상은 앞서 제작된 팔상도를 참고 하였다고 추정된다. 통도사의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들은 경전내용을 바르게 해석하고, 앞서 제작된 팔상도를 참고하면서도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새로운 시도를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3. 팔상도 제작 畫師들

18세기는 임진왜란(1592~1597년)과 병자호란(1627~1636년) 兩亂동안 승려들의 활약으로 척불정책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불교가 새로운 부흥기에 접어들어 불교적 분위기가 사회에 충만하게 된다<sup>25)</sup>. 전란으로 또는 불교 억압 정책으로 파괴되었던 수많은 사원의 중창불사와 더불어 많은 불화들도 이 시기에 제작되었고 팔상도 역시 이 시기에 활발히 제작되었다.

한편 일반 회화에서는 통도사의 팔상도가 제작된 1775년은 영조51년, 즉 英祖 말년이며, 당시의 화단은 표암 강세황이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이고 단원 김홍도의 나이 30세로 다음해 정조 즉위한 해 1776년 봄 〈群仙圖〉 병풍을 제작한다.

---

25) 문명대, 『朝鮮佛畫』 중앙일보, 1984 P.81참조

통도사의 팔상도가 제작된 18세기에 불화제작에 활발한 활동을 보인 대표적인 화사와 팔상도의 제작에 직, 간접적으로 활약한 화사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를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26)

18세기 전반기 호남지역에는 충청도와 경상도에 이르기까지 義謙과 그의 화파가 많은 화적을 남기고 있다.<sup>27)</sup> 의겸은 1713년 장흥 보림사 팔상전후불도를 시작으로 1757년 구례 화엄사 삼신불도까지 약 45년간 28점의 불화를 제작하여 18세기 전반의 화단을 주도하였다. 1725년 제작 송광사 팔상도는 의겸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나 그 전 해인 1724년에 송광사 응진당의 석가모니 후불탱을 제작하고, 1725년작 송광사 영산전 석가모니후불탱 제작에 참여한바 있다. 때문에 이미 1719년 경남 고성 雲興寺 팔상도를 제작하였던 경험이 있었던 의겸은 송광사 팔상도의 제작에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송광사 팔상도제작에 참여하였던 最祐도 3년 후인 1728년 인근지역에 있는 쌍계사 팔상도의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그 또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18세기 후반기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던 화사는 快允이다. 그는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하였는데 1751년 순천 선암사의 아미타불도를 시작으로 1802년 순천 선암사 제석도까지 19점의 불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영남지역에서는 경상도 북부지역인 직지사를 중심으로 卍冠이, 남쪽 지역에서는 기림사와 통도사를 중심으로 任閑이 비교적 많은 화적을 남기고 있다. 세관은 1725년 창원 성주사 감로왕도를 필두로 하여 상주 남장사와 1775년 김천 직지사의 약사불도까지 9편의 불화를 제작하였다.

---

26) 18세기 불화단을 주도하였던 불화사들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함.

장정희 「조선후기 불화의 화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39- 197 참조

27) 장정희 앞의 책. 그의 화적을 살펴보면 충청도(3점), 경상도(11점)에도 그의 화적이 나타나지만 전라도 지역(15점)에 가장 많은 불화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임한은 1718년 기림사의 삼신불도를 시작으로 하여 영남지역의 석남사, 운문사에 그의 화적이 있으며,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소장 1759년작 삼신불도까지 비교적 大作으로 7편의 불화를 남기고 있다.<sup>28)</sup> 통도사 팔상도가 그려지기 16년 전인 1759년, 통도사에 임한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삼신불도가 완성이 되어 寺內에서도 보다 수준 높은 불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리라 추측이 된다.

팔상도가 제작된 1775년에 통도사에서 제작된 불화로써 아래의 3점이다. 이 해에 抱寬과 有誠은 2편의 불화제작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 해에 제작된 불화는 다음과 같다<sup>29)</sup>.

〈표4〉 1775년 통도사 佛畵製作例

|   | 佛畵名         | 참여화사                             |
|---|-------------|----------------------------------|
| 1 | 藥師殿 藥師如來後佛幀 | 金魚 抱寬 外                          |
| 2 | 應眞殿 釋迦牟尼後佛幀 | 良工 定聰 有誠 外                       |
| 3 | 大雄殿 八相幀     | 良工 抱冠 有誠 任平 富 · 學演 外<br>時僧統 嘉善偉札 |

팔상도가 제작된 해인 1775년, 팔상도 제작에 수화사로 되어있는 抱冠이며 藥師殿 藥師如來後佛幀을 제작한 화사는 抱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

28) 장정희 「조선후기 불화의 화사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139- 197 참조

29)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에 대한 기록은 제 IV장 제일 도솔래의상 화기해 석편 참조.

참고로 통도사 성보박물관 한정호연구사는 『1767년 通度寺 掛佛幀고찰』에서 ‘팔상도의 화기와 통도사 전래 현판들 가운데 「八相記文」의 내용을 조합함」이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良工錄: 華月斗薰

畵師: 抱冠 定聰 內監 宇明 壬平 就澄

副畵師: 有誠 曉俄 定寬 百奉 志言 興悟 戒禹 策寬 學□ 伸一 靜坦 守仁 坦察 定眼 守嘩 勝演 廣益 待惠 坦悟 若善 肯悟 會□ 有仁 芭一 定玉 守旻 志悅 悟守 定諱 斗眼 尙悟 廣信 戒湜 厚文

자는 다르지만 독음이 같고 여러 정황으로 보아 동일 인물일 것으로 추정된다. 抱冠은 유성과 더불어 당대에 뛰어난 화사였을 곳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통도사나 다른 곳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가 없어 그의 畵跡은 앞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sup>30)</sup>.

유성 역시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그의 화적이 보이질 않아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의 화적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검토하려한다. 18세기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義謙, 경북 사불산과의 信謙과 더불어 조선 3대 화사 중 한 사람으로 화승들의 입을 통해 그의 명성이 전해지고 있다<sup>31)</sup>. 유성의 화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2)</sup>.

---

30) 정우택, 『통도사』 빛깔있는 책들. 110. 대원사, 2001. p.94 참조  
팔상도가 제작된 같은 해 1775년에 제작된 약사전 후불탱에는 抱寬으로 기록되어있다.

31) 石鼎 「통도사의 탕화」 p.249 참조. 『한국의 불화』 II권, 정보문화재연구원, 1996.

32) 有誠에 관하여서는 장정희 앞의 책 p.193에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1755년과 1769년 운문사 불사에도 참여 한 것 등으로 보아 운문사에 상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의 이름이 ‘有性’ 되어 있고 활동장소와 시기, 불사 참여 연도가 맞지 않는 점등으로 보아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표 5〉 有誠 作例表

| 사찰명    | 제작년대 | 불화명     | 참여화사                                    | 備考    |
|--------|------|---------|-----------------------------------------|-------|
| 봉정사    | 1765 | 甘露王圖    | 都居 白仁 達蓮 白仁<br>副居 有誠 宗戒 月遲              | 副居 有誠 |
| 봉정사    | 1766 | 雪峰堂思旭眞影 |                                         |       |
| 봉정사    | 1766 | 抱月堂楚旻眞影 |                                         |       |
| 봉정사    | 1768 | 淸虛堂眞影   |                                         |       |
| 봉정사    | 1768 | 松雲堂眞影   |                                         |       |
| 예천 서악사 | 1770 | 靈山會上圖   | 富日 有誠 慧乂 快宗                             |       |
| 안동 暮雲寺 | 1770 | 地藏幀     | 有誠 天性 若朋 有祥<br>字兼 金牛 太喆                 | 首畫師   |
| 開心寺    | 1772 | 掛佛      | 有誠 有偉 性聰 報恩<br>尙欽 富 · 守仁 信日<br>法奎 錦仁 快宗 |       |
| 양산 통도사 | 1775 | 靈山會上圖   | 定聰 有誠 定□ 富 ·<br>守仁 色 ·                  |       |
| 통도사    | 1775 | 八相圖     | 抱冠 有誠                                   |       |

有誠이 화기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765년 안동 봉정사 감로탱의 제작에 副居라는 직위로 기록되어있다. 부거라고 하는 직책은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都居와 副居라는 직책명이 都와 副라고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 책임을 지는 首畫師를 都居라고 추정한다면 有誠은 부책임자로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sup>33)</sup> 1770년, 인근지역인 예천 서악사에 영산회상도와 안동 모운사에 지장탱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성이라는 그의 이름이 화사

33) 장정희 앞의 책, p. 12

이들의 명칭에 대해서는 畫工, 畫手, 良工, 畫員, 化士(畫師), 畫仙, 敬畫, 都畫師(員), 片手, 龍眠, 尊宿 등으로 다양하게 쓰여 왔다고 되어있다. 都居라는 직책은 都畫師라는 명칭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 이름을 쓰는 화기란 에 처음으로 적혀있는 것을 보면 이때 비로소 유성은 佛畵壇에서 인정을 받고 독자적인 불화제작을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2년후 충남 예산 개심사의 괘불제작에 수화사로 참여를 하게 된다. 이때에 그와 함께 참여한 화사는 富 ·과 快宗인데, 이 중 부일은 1770년 예천 서악사 영산회상도에 수화사로 이름이 올라 있었으며, 이들과 함께, 즉 유성은 부일과 쾌종과 함께 1772년 개심사 괘불조성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개심사 괘불제작에 수화사로 활동한 유성은 이후 통도사의 응진전 영산회상도와 팔상도에 예천 서악사부터 함께 한 부일, 개심사에서부터 함께 활동한 부일과 수인이 통도사 영산회상도에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아 그의 화파가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될듯하다. 통도사 팔상도 제3 사문유관상을 부일과 함께 제작한 것으로 되어있다.

1765년 안동 봉정사에서 화사활동을 시작한 有誠은 이후 약 10여년 동안 충남 예산 개심사, 경상도 북부지역인 안동, 예천을 비롯하여 후에 통도사에 그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팔상도와 응진전 영산회상도를 제작하고는 안타깝게도 그 이후의 화적은 확인할 수가 없다. 그 이후의 행방이나 화적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Ⅲ. 통도사 팔상도의 畵記의 典據와 書風

Ⅲ장에서는 우선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와 『석씨원류』 화기를 비교하여 화기 내용의 연원을 찾아보겠다. 그 다음으로 팔상도화기의 서풍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剝落으로 인하여 판독할 수 없는 缺落된 글자들을 추정 복원하고자 한다.

18세기 팔상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각 도상 옆에 화기가 있어 도상만으로

충분하게 표현하지 못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혀 놓았다는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의 불전도에 화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화제에 가까운 매우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1673년 제작된 『석씨원류』에는 앞쪽에 삽화가, 다음 쪽에는 각각 四字成語의 화제 다음에 가로 12行 세로 24字씩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288字 정도로 그 내용을 적어 놓고 있다. 그러나 채색화로 나타난 1709년에 제작된 용문사 팔상도만 하더라도 화기는 거의 화제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송광사 팔상도부터 비교적 많은 화기가 있어 도상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후 1775년에 제작된 통도사 팔상도에 이르러 현존하는 팔상도 중에서 가장 많은 60개의 화기를 기록하고 있다.

〈표6〉 통도사 팔상도 화기의 수

| 八相名         | 畫題   | 화기의 수 | 계  | 八相名         | 畫題   | 화기의 수 | 계 |
|-------------|------|-------|----|-------------|------|-------|---|
| 第一<br>兜率來儀相 | 瞿曇貴姓 | 4     |    | 第六<br>樹下降魔相 | 魔女眩媚 | 2     |   |
|             | 乘象入胎 | 1     |    |             | 魔軍拒戰 | 1     |   |
|             | 摩耶託夢 | 1     |    |             | 魔衆拽鉗 | 1     |   |
|             | 淨飯聖王 | 1     | 7  |             | 地神作證 | 1     |   |
| 第二<br>毘藍降生相 | 樹下誕生 | 3     |    |             | 成等正覺 | 0     | 5 |
|             | 九龍灌浴 | 6     |    | 第七<br>鹿苑轉法相 | 華嚴大法 | 0     |   |
|             | 從園環宮 | 2     |    |             | 轉妙法輪 | 1     |   |
|             | 仙人占相 | 1     | 12 |             | 小兒施土 | 1     |   |
| 第三<br>四門遊觀相 | 路逢老人 | 1     |    |             | 初建戒壇 | 2     |   |
|             | 道見病臥 | 1     |    |             | 布金買地 | 1     | 5 |
|             | 路視死屍 | 1     |    | 第八<br>雙林涅槃相 | 雙林涅槃 | 0     |   |
|             | 得遇沙門 | 1     | 4  |             | 凡火不然 | 2     |   |
| 第四<br>踰城出家相 | 初啓出家 | 3     |    |             | 佛現雙足 | 1     |   |
|             | 宮女昏睡 | 1     |    |             | 舍利收拾 | 2     |   |
|             | 夜半踰城 | 2     |    |             | 舍利均分 | 1     | 6 |
|             | 車匿還宮 | 1     | 7  |             |      |       |   |
| 第五<br>雪山修道相 | 金刀落髮 | 4     |    |             |      |       |   |
|             | 勸請廻宮 | 3     |    |             |      |       |   |
|             | 禪河澡浴 | 6     |    |             |      |       |   |
|             | 六年苦行 | 1     | 14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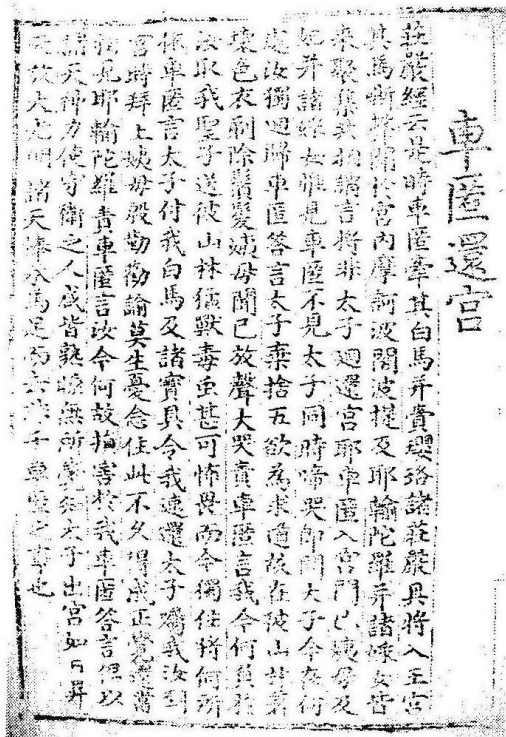
위의 〈표6〉에서 보면 각 상마다 4개에서 17개의 화기가 기록되어 있고 모두 60개의 화기가 있다. 그리고 제6상의 성등정각, 제7상 화엄대법, 제8상 쌍림 열반의 장면에는 화기가 없는데, 이는 도상만으로도 충분하게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화기를 마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 1. 화기의 典據 (통도사 팔상도화기와 『석씨원류』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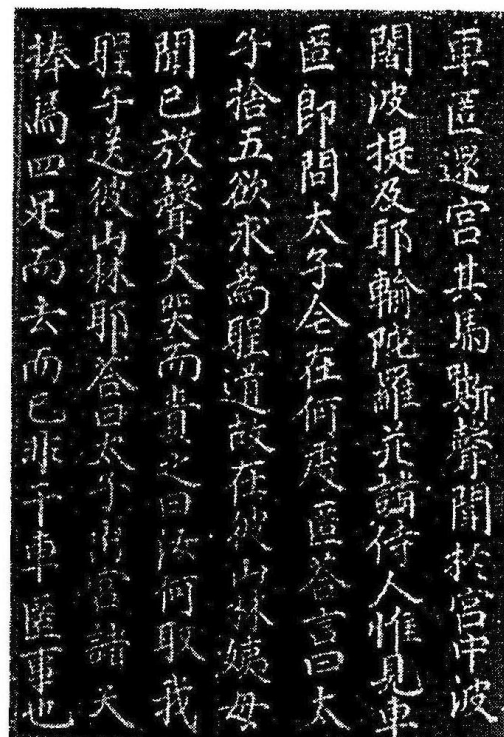
『석씨원류』와 통도사 팔상도와와의 관계는 첫째는 도상에서 그 관계를 살펴볼 수 있고 둘째는 화기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겠다. 도상과의 관계는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18세기에 혹은 그 이후에 제작된 어떠한 팔상도보다도 통도사의 팔상도는 앞서 제작된 팔상도의 도상을 참고 했으면서도 어떤 팔상도보다도 가장 『석씨원류』를 충실하게 모본으로 했다는 점을 밝혔다.

통도사 팔상도화기 역시 『석씨원류』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석씨원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내용을 충실하게 축약하여 이를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란에 옮겨 놓았다.

그 예로 1. 車匿還宮 2. 瞿曇貴姓의 예를 보겠다. 다음은 왼쪽이 『석씨원류』의 차익환궁의 내용이며 오른쪽은 통도사 팔상도 차익환궁 장면의 화기이다.



〈圖 10〉 차익환궁화기  
(『석씨원류』 권 1, 1673년)



〈圖 11〉 차익환궁화기  
(통도사팔상도, 1775년)

## 車匿還宮

莊嚴經云是時車匿牽其白馬并寶瓔珞諸莊嚴具將入王宮  
其馬嘶聲聞於宮中摩訶波闍波提及耶輸陀羅并諸婬女皆  
來聚集共相謂言將非太子廻還宮耶車匿入宮門已姨母及  
妃并諸采女惟見車匿不見太子同時啼哭即問太子今在何  
處汝獨廻歸車匿答言太子棄捨五欲求爲(聖)道故在彼山林著  
壞色衣剃除鬚髮姨母聞已放聲大哭責車匿言我今何負於  
汝取我聖子送彼山林猛獸毒虫甚可怖畏而今獨住將何所

依車匿言太子付我白馬及諸寶具令我速還太子囑我汝到宮時拜上姨母慇懃勸諭莫生憂念住此不久得成正覺還當相見耶輸陀羅責車匿言汝今何故損害於我車匿答言但以諸天神力使守衛之人咸皆熟睡無所覺知太子出宮如日昇天放大光明諸天捧承馬足而去非干車匿之事也<sup>34)</sup>)

(굵게 처리한 부분은 필자표기로 통도사 팔상도화기와 동일한 부분임)

위의 〈圖 10〉 『석씨원류』의 차익환궁 장면의 화기는 총 284字이고 이 가운데 통도사 팔상도의 차익환궁장면에 있는 화기와 일치하는 수는 86字가 된다. 주목해야 할 것은 통도사의 화기 내용을 보면 『석씨원류』의 화기에서 발췌했으면서도 통도사의 화기에는 『석씨원류』에 있는 字만을 거의 사용하고 있고 혹 다른 字를 택하였다면 그 의미가 매우 유사한 단어로 했다는 점이다. 예로 姝女는 侍人으로(2행), 言은 曰로 쓰고 있는 것이 그 예가 되겠다.

다음은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의 연원으로 제1상 도솔래의상 제1장면 구담 귀성의 화기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瞿曇貴姓

釋迦譜云自劫初平等王至大茅草王子懿摩王王遜位與弟從婆羅門學姓曰瞿曇而受之言當去王衣如吾所服受瞿曇姓既入深山形服殊異無能識者於甘蔗園以爲精舍時有盜賊從由園過 捕盜 尋跡執小瞿曇 王令以木貫身 射之立以爲標血流爲地 大瞿曇仙天眼見之 神足飛來 我徒何罪酷乃是

34) 5행의 瞿 字는 『석씨원류』에는 없으나 통도사 화기에는 나타나는 字임

乎取土中血以泥團之持還精舍左血著於左器之中其右亦然  
 瞿曇仙人乃呪願曰若其至誠願天神有知使血化成爲人  
 却後十月左卽成男右卽成女因名瞿曇或名甘蔗至師子頰  
 王生四太子一名淨飯二名白飯三名斛飯四名甘露飯印度  
 族姓有四刹帝利王種婆羅門淨行種吠舍商賈種戍陀羅屠  
 創種前二貴姓後二賤姓隨時所尙佛主其中釋迦出剛強之  
 世託王種以振威淨飯遠祖捨國修行受瞿曇姓世爲貴種

(굵게 처리한 부분은 필자표기로 통도사 팔상도화기와 동일한 부분임)

위는 『석씨원류』 瞿曇貴姓의 全文이다. 위의 전문 중에서 진하게 처리된 가운데 부분, 즉 瞿曇姓부터 名瞿曇까지가 통도사 팔상도의 제1상, 제1 장면 구담귀성의 장면에 나오는 화기의 典據가 되는 부분이다.

여기서는 『석씨원류』에 나오는 字수는 139자인데 팔상도의 화기와 동일한 글자의 수는 102자이다. 약 75%가 동일한 글자를 쓰고 있다. 다르게 써진 부분의 글자도 매우 유사한 글자를 쓰고 있다. 예를 들면 神足飛來는 神足來曰로, 天眼見之는 天眼觀之로, 呪願曰은, 祝之曰로, 左卽成男는 左則成男 등이다. 『석씨원류』에 없는 몇 자가 통도사 팔상도 화기분에 첨가를 한 것도 있는데 이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려 했던 書寫者의 배려로 생각된다.

『석씨원류』의 내용을 정확하고 세련되게 축약하고 때로는 첨가를 한 것을 보면 통도사의 화기를 서사한 이는 한문과 경전에 매우 정통한 이가 옳겠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는 한문과 경전에 매우 정통한 이가 독자적으로 『석씨원류』의 화기부분을 축약, 발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관계가 깊다.

## 2. 다른 팔상도의 화기.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와 이보다 약 50년 앞서 제작되어 후대의 모든 팔상도의 모본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화기가 비교적 많은 송광사의 팔상도와 쌍계사의 팔상도의 화기를 비교하여 보겠다. 다음의 비교에서 보듯이 이들 사이에 연관성은 찾기가 어려웠다.

1725년에 전남 승주 송광사에서 제작된 팔상도와 그보다 3년 뒤인 1728년 인근에 위치한 전남 하동 쌍계사의 팔상도의 차익환궁장면의 화기는 다음과 같다.

| 송광사 팔상도 - 차익환궁장면                                                                                                                     | 쌍계사 팔상도 - 차익환궁장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人馬從來人亦未至飯王哀痛不禁愁</li> <li>· 乳母耶輸但見奴馬哀痛因極悲弓度日也</li> <li>· 車匿還宮獻衣冠</li> <li>· 健陟馬還來</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飯王亦哀痛</li> <li>· 乳母及耶輸陀羅但見奴馬哀痛因極嘔如耳</li> <li>· 車惹奴還宮健陟馬非斯</li> </ul> |

팔상도의 화기내용이 가장 많은 것은 역시 통도사의 팔상도이고, 그 다음이 송광사의 팔상도이며 그 다음이 쌍계사의 팔상도의 화기이다. 위의 표에 나타난 송광사, 쌍계사의 화기와 통도사의 도상과 화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 차익환궁의 장면을 도해한 장면에서 비교를 하여 보면 통도사 팔상도에는 淨飯王이 등장하지 않지만 송광사 및 모든 팔상도에서는 정반왕이 등장하고 있다.
- 2) 정반왕의 의미로 송광사 및 쌍계사의 화기에는 飯王으로 되어 있어 정확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통칭 적인 것을 쓰고 있다.
- 3) 태자비 耶輸陀羅를 송광사의 화기에는 耶輸但로, 쌍계사의 화기에는 耶輸陀羅但로 쓰고 있다.



4) 車𨮒과 乾陟의 의미로 송광사와 쌍계사의 화기에는 奴馬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

5) 쌍계사의 화기에서는 車𨮒을 車惹로, 乾陟을 송광사는 健陟으로 쌍계사는 隄陟으로 쓰고 있다.

이상의 비교에서 간략하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송광사와 쌍계사의 화기의 내용은 『석씨원류』에서 발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고유명사인 경우에 경전이나 『석씨원류』에 나오는 정확한 字를 썼다기 보다는 독음이 비슷한 字를 차용하여 쓰고 있다.

셋째, 도상과 화기에서 통도사의 팔상도는 이전에 제작된 팔상도를 本으로 도해하여 내용을 옮겼다가 보다는 『석씨원류』을 가장 충실하게 도상 및 화기의 本으로 하여 독자적인 제작을 했다는 것이다.

### 3. 畫記의 書風

각 相별로 대표적인 화기 한, 두개 정도를 열거 해보면 다음과 같다.<sup>35)</sup>

大瞿曇仙以天眼觀之  
而神足來曰我徒胡大罪  
酷乃如是乎因取泥血以  
泥土團持還舍左血藏於  
左兜右血藏於右兜而視  
之曰天神有知血化爲  
人却有左則成男右則  
成女因姓瞿曇氏之姓

1-1-3

菩薩胎後諸天眷  
屬常隨奉供宮中乳  
女常隨娛樂不辭惻

1-3-1

見有羽唐天化作七寶輦  
輦四大天王各變其身  
爲童子前朗從而行復有

2-3-1

太子游西門佐瓶天子化在  
世間瑣妾之法令諸夫人  
擲取而去太子恠而問之  
取者報言彼死人忘父子  
之有親捨平生之食養靈  
舍爲先人親族以爲殯  
奠汝捨之去也太子復問  
我亦如是否取者曰太子  
舍雖尊壯貴未免此死  
也太子聞已慘惻不已

3-3-1

太子語車匿言汝可鞍韉  
轡來車匿答言今始半夜  
何用鞍馬太子  
復言我今出家莫違我意  
時淨居諸天令彼軍士宮  
中殊女侍位諸臣悉皆瞞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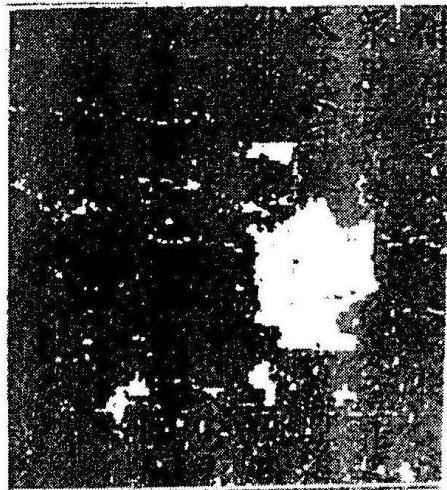
太子聞仙道已因入雪山  
苦行六年日食一麻一麥  
乃至枯木天降牧女獻  
乳糜粥身光潤澤  
遂至菩提正覺

5-4-1

35) 화기 사진아래의 숫자는 다음과 같이 정했다. 相-場面-화기의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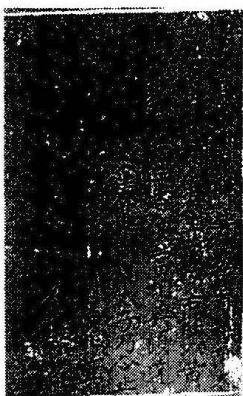
6-2-1



6-3-1

初建戎壇有福德者見之光照八百  
由旬薄福者見之猶如黑聚壇

7-2-2



7-5-1

南時世尊在靈鷲山說法時  
諸佛摩伽提國來至依所問伏今日伏  
號位不離自勝地等以天耳聞迦葉來  
即從栴檀叉出兩豆如葉光之子提摩  
拘不勝帶之時迦葉及三弟子皆遙  
指七國四面言諸天在摩竭散供養

8-3-1



8-4-2

통도사 팔상도가 제작된 시기가 1775년이니 지금부터 약 230년에 제작되었음을 감안한다면 그림이나 화기의 상태는 비교적 온전한 편이다.

八相 중에서 화기의 결락현상이 가장 심한 곳은 제6상 수하항마상이다. 팔상 중에 제1상에서 제5상 설산수도상 까지 화기는 모두가 동일한 재료의 안료인 붉은 바탕에 흰 글씨로 동일한 서체로 한사람이 서사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나 제6상부터는 다른 이가 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6상 수하항마상부터는 화기의 바탕색인 붉은 색 채도가 다르고 안료도 다르다.
2. 화기의 글씨는 제5상까지 흰색으로 쓰여 졌으나 제6상부터는 흰색과 검은색이 혼용되고 있으며, 서체도 앞의 사람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내용의 기록도 제5상까지와는 다르게 제6상 마녀현미 (6-1-2)와 제8상 범화불연 (8-2-1)에서처럼 두 개의 장면에 대한 화기를 한 곳에 함께 쓰고 있다.
4. 제6상부터는 지금까지 쓰지 않던 異字體가 갑자기 많이 등장하고 있다.
5. 연화질을 적어 놓고 있는 아래 화기부분에 제6상인 수하항마상부터 제8상까지 화사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제6상 수하항마상부터의 화기는 앞의 제5상 설산수도상까지의 畵寫者와는 다른 사람이 화기를 적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제6상부터 제8상까지는 지금까지 그려왔던 화사가 아닌 다른 화사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을 전혀 배제할 수 도 없다는 것이며, 혹은 제1상부터 제5상까지가 먼저 제작되고 제6상부터의 제작시기가 어떤 연유에서인지 늦어 졌을지도 모른다는 조 심스러운 추정도 가능하다.

화기의 글씨의 서체는 해서인데, 비교적 이체자가 많다. 서풍의 두드러진

특징은 唐 안진경의 것으로 화기가 쓰이던 당시에 유행했던 서풍이다. 엄밀히 말하면 안진경의 서풍이 조선화된 것으로 당시 왕실과 士類들에 의해 가장 많이 쓰이던 것이다. 일찍이 崔錫鼎(1646~1715), 朴泰維(1648~1746) 등이 안진경의 서풍을 수용하여 조선화시키는데 一助하였는데, 송시열이나 송준길도 안진경의 서풍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조선전기에 유행했던 조맹부의 송설체나 왕희지체를 조선화하여 성공한 한석봉체 등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를 겪으며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숙종시대 이래로는 안진경의 서풍이 두드러지게 유행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아래 모든 화기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모두 조선화된 안진경의 서풍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 상이점을 갖고 있는데, 구분하여 셋으로 나눌 수 있겠다.

첫째는, 당시에 가장 유행한 가장 반듯하면서도 일반적인 서풍으로 매우 중후하면서도 단정하다. 가로획은 비교적 가는데, 말발굽 모양으로 힘 있게 기필하여 점점 가늘어지다가 2/3지점에 와서 약간 굽어지면서 힘 있게 붓자국이 나도록 눌러 마무리한 것이 거의 안진경의 필획과 흡사하다. 오른쪽의 세로획은 다른 획에 비해 굵고 원윤하게 표현하여 중후한 인상을 주도록 배려하였는데, 이 또한 안진경의 서풍이다. 파임은 '之'자에 보이듯이 한번 굴러 획에 변화를 주고 힘있게 눌러 떼는데, 안진경의 서풍도 있고 더욱 단정하도록 곧게 뽑아낸 것도 있다. 갈고리 획은 둥글게 마무리하였다가 뽕족하게 붓끝을 뽑아낸 것이 안진경의 서풍을 닮았고, 가로획과 세로획이 겹치는 오른쪽 어깨 부분에 꺾이는 부분도 둥글게 각이 형성되는 것이 닮았다. '子'자의 첫 획은 매우 특이하게 서사하였는데, 이는 조맹부의 서풍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므로, 고려 말에 유입되어 조선전기에 풍미하였던 서풍의 잔존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다. 날자의 결구는 가로획이 비교적 가늘고 세로획이 굵은데, 이는 안진경 서풍의 일반적 특징이며,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한 경우도 있지만 화기의 서풍은 단정하면서도 온화하게 표현한 것이 주를 이룬다. 자형도 세로로 긴 것이 비교적 많지만, 정방형이나 가로로 넓게 보이는 것도 있다.

章法(전체 화기의 어울림)은, 세로줄을 고르게 맞추고 가로는 줄에 구애받지 않고 자형의 크기에 어울리도록 자연스런 장법을 구사하였다.

둘째 서풍은 수하항마상에 쓰인 화기의 서풍으로 비교적 가는 필획으로 쓰여진 것이다. 앞부분에 쓰인 화기와는 달리 검은색으로 서사되어 언뜻 보면 크게 다른 서풍으로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거의 같은 서풍으로 파악된다. 이체자의 상이를 비교한다면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비교적 가는 필획과 앞서의 화기에 나타난 안진경 서풍의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아 다른 서풍으로 볼 수도 있겠다. 녹원전법상의 수달 장자에 관한 화기의 서풍은 앞서 서술한 안진경의 서풍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원운한 향세의 결구는 닮았지만 파임 획의 각도가 다르며, 가로획과 세로획의 뚜렷한 대조가 보이지 않아 서사자가 다른 사람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子'자의 첫 획 표현도 다르며,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르다.

셋째는, 쌍림열반상의 爾時世尊在金棺裏 부분 화기의 서풍은 다른 화기의 서풍과 확연히 다른 서풍을 보여주고 있다. 약간 서투른 듯하여 고졸하며, 결구나 장법이 들쭉날쭉한 것이 특이하다. 구체적인 필 획은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다르며, 더구나 '佛'자의 이체자가 엄연히 달라 畵寫者가 다른 것이 확실해 보인다. 화기의 서사공간에 따른 장법도 차이가 난다.

녹원전법상의 초건계단 화기의 서풍은 안진경의 서풍과 통하나 앞서 처음 거론한 화기의 서풍과는 다르다. 조금 서툰 것인지, 아니면 서사 공간이 좁아 위축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화기의 서사공간에 따른 장법도 차이가 선명하다.

화기의 전체적인 서풍은 英祖年間に 본격적으로 유행한 조선화된 안진경

의 서풍으로 파악되는데, 재래의 조선화된 송설체나 한체(한석봉체)의 영향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화기가 서사되던 당시에 이러한 안진경 서풍이 조선화된 것은 사류들 사이에 크게 유행하여 남아 있는 유묵이나 비석의 주류 서풍으로 확인된다. 아마 당시 이러한 서풍에 능숙한 서가가 화기의 서사를 담당하였으며, 한 두명의 다른 서가가 뒷부분의 서사를 담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유행한 이광사를 비롯한 동국진체의 서풍과는 일맥상통하면서도 다르지만 正祖代에 이르면 이러한 서풍이 완전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것이 서예사에 두드러진다.

#### 4. 화기오독의 정정과 결락부분의 추정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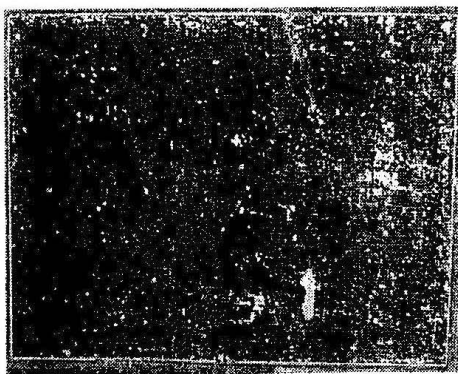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는 대부분이 『석씨원류』의 내용을 발췌, 축약한 것이다. 결락이 있는 부분은 제5상 설산수도상의 화기 번호 5-1-3부분의 9字는 추정하기가 어려웠고, 화기 부분의 박락이 가장 심한 제육상 수하항마상의 화기번호 6-1-2, 6-3-1, 6-4-1부분은 다음 표와 같이 誤讀 및 결락부분이 있었다.

화기부분의 1) 각 相에 있는 화기의 내용을 『韓國의 佛畵』 화기 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의 오기로 추정되는 몇 字와 2) 박락으로 인하여 결락된 부분이 4군데 있는데 이 부분은 『석씨원류』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 복원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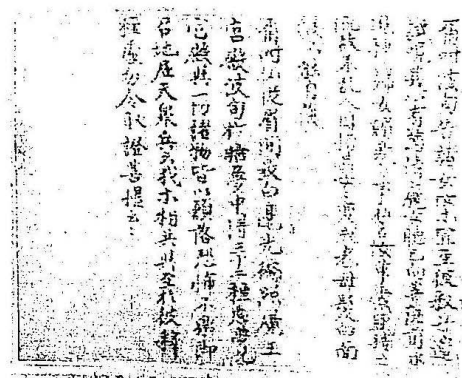
〈표7〉 결락부분의 추정복원 일람표

| 화기<br>번호 | 『韓國의 佛書』 화기내용                          | 결락부분의추정복원내용                            | 비고<br>(訂正)        |
|----------|----------------------------------------|----------------------------------------|-------------------|
| 6-1-2    | 佛言 汝草□□□之流<br>故來亂人因□其女變成老母<br>髮白面皮不能白□ | 佛言 汝革囊盛穢之流<br>故來亂人日指其女變成老母<br>髮白面皺不能白復 | 草→革<br>因→日<br>皮→皺 |
| 6-3-1    | 汝可起□□□□者 擲汝<br>海外 佛言 汝今□能動淨瓶           | 汝可起去若不去者 擲汝<br>海外 佛言 汝今先能動淨瓶           |                   |
| 6-4-1    | 佛告魔王 汝□前□ 施辟支<br>佛一鉢之食                 | 佛告魔王 汝於前世 施辟支<br>佛一鉢之食                 |                   |
| 5-1-3    | □送宮□□□□請迎太□□<br>□□                     |                                        |                   |

1) 화기 6-1-2



화기번호 6-1-2



화기번호 6-1-2



爾時 波旬告諸女 汝等宜至復釋子邊 試觀其心有慾情 魔女聽已 向菩薩前 示現  
種種婦女媚惑之事 佛言 汝草<sup>36)</sup>□□□<sup>37)</sup>之流 故來亂人因<sup>38)</sup>□<sup>39)</sup>其女變成老母  
髮白面皮<sup>40)</sup>不能白□<sup>41)</sup>

위의 6-1-2의 화기는 한 화기 속에 다른 화기와는 달리 서로 다른 내용  
의 두 개의 장면에 관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두 번째의 내용을 적을 때  
줄을 바꾸어 새로 서사가 되어 있는 드문 경우 가운데 하나이며, 제6상부터  
이런 예가 종종 있다. 화기의 앞의 五行내용은 마녀현미의 내용이며 뒤의  
五行내용은 마왕득몽의 내용이다. 화기번호 6-1-2중에 결락이 되어 있는 字  
는 5字를 추정복원하고, 또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내용을 『한국의 불화』 각  
권마다 부록으로 게재되어 있는 화기에 옮기면서 오기인 것으로 추정되는  
몇 字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1) 汝草□□□之流는 汝革囊盛穢之流으로

草는 革의 誤記로 추정됨.

□□□는 囊盛穢로 추정 복원함<sup>42)</sup>.

(2) 故來亂人因□其女變成老母髮白面皮不能白□는

故來亂人日指其女變成老母髮白面皺不能白復 으로 추정됨<sup>43)</sup>.

全文을 다시 써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추정된다.

汝輩故來亂入善意非清淨種革囊盛穢汝來何爲去吾不用笞阿母等不安天上何爲汝

36) 革으로 추정됨

37) 汝草□□□之流는 汝革囊盛穢之流으로 추정됨. - 『석씨원류』 魔女炫媚 참조

38) H으로 추정 됨. 앞의 책

39) 指로 추정됨. 앞의 책.

40) 皺로 추정됨. 앞의 책 참조.

41) 復으로 추정됨. 앞의 책 참조.

42) 『석씨원류웅화사적』 魔女炫媚 참조

43) 『석씨원류웅화사적』 魔女炫媚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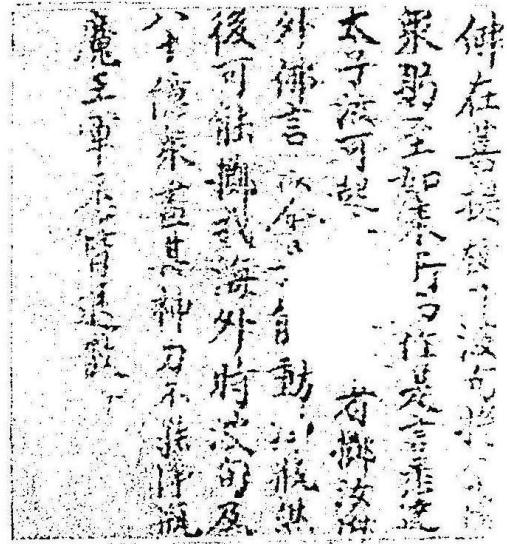
來佛指魔女變成老母髮白面皺不能自復

- 이때에 파순이 여러 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이 마땅히 다시 석가 옆에 가서 그 마음에 욕정을 일으키도록 시도하여 보아라’ 이 말을 듣고 보살 앞으로 나아가 여러 가지의 미혹시키는 짓을 하였으나, 부처가 말하기를 ‘너희는 한낱 더러운 것(똥)을 담아놓은 가죽 주머니에 불과하거늘 여기 와서 사람의 눈을 어지럽히는구나’하였다. 그녀들을 가리켜 노파로 변하게 하니 머리칼이 희어지고 얼굴엔 주름이 생겨 회복할 수 없었다.

## 2) 화기 6-3-1



6-3-1



6-3-1

佛在菩提樹下 波旬將八十億衆 躬至如來所 而作是言 悉達太子 汝可起□□□  
□44)者 擲汝海外 佛言 汝今□45)能動淨瓶 然後可能擲我海外 時波旬及八十億  
衆 盡其神力 不能淨瓶 魔王軍悉皆退散

44) 去若不去로 추정됨. 앞의 책 참조.

45) 先으로 추정됨. 앞의 책 참조.

汝可起□□□□者 擲汝海外 佛言 汝今□能動淨瓶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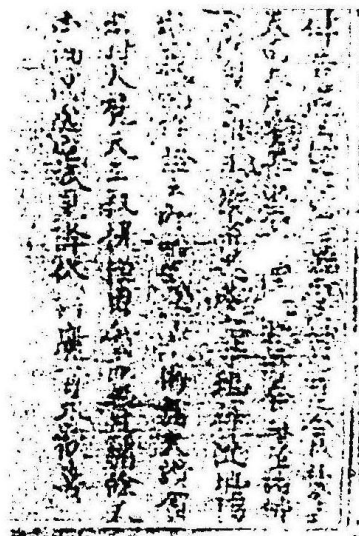
汝可起去若不去者 擲汝海外 佛言 汝今先能動淨瓶으로 추정 복원함<sup>46)</sup>.

- 부처가 보리수 아래에 계실 때 파순이 팔십억이나 되는 무리를 이끌고 몸소 여래가 있는 곳에 이르러 싯달태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여기서) 일어나서 가라. 만일 떠나지 않는다면 너를 바다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하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먼저\_이 정병을 옮길 수 있다면 그 후에 나를 바다 밖으로 던질 수 있으리라’하였다. 이때 파순과 팔십억무리들이 모든 신력을 다 해보았으나 정병을 움직일 수 없었다. 마왕군이 모두 물러나 흩어졌다.

### 3) 화기 6-4-1



6-4-1



6-4-1

46) 『석씨원류응화사적』 魔女炫媚 참조

佛告魔王 汝□前□<sup>47)</sup> 施辟支佛一鉢之食 故生六天爲大魔王 而我於阿僧祇劫 供養無量諸佛云 波旬言 誰爲證者 是時無量地神從地湧出云 我爲作證云 卽時 魔子懺悔 諸天讚賀 爾時大梵天王 釋提桓因無量無對諸餘天等 遍滿虛空 咸見 降伏諸魔 皆大歡喜

佛告魔王 汝□前□ 施辟支佛一鉢之食 이 부분의 二字가 결락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佛告魔王 汝於前世 施辟支佛一鉢之食 로 추정된다.

佛言波旬 汝於前世 但曾作一寺主受一日八戒 布施辟支佛一鉢之食<sup>48)</sup>

-부처가 마왕에게 고하기를 ‘네가 前世에 벽지불에게 한 바리의 음식을 베풀었기 때문에 육천에 태어나 마왕이 되었다. 나는 아승지계에 무량제불에게 공양을 하였다’고 말하자 파순이 말하기를 ‘누가 그것을 증명하랴’하였다. 이때 무량지신이 땅에서 솟아 나와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 하니 즉시 마자가 참회를 하고 제천이 이를 찬하하였다. 그때 대범천왕 석제환인과 무량무대(無量無對)한 제여천 등이 허공에 두루 가득히 있다가 마귀들을 항복시키는 것을 다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였다.

---

47) 汝於前世로 추정 됨. 앞의 책 참조.

48) (釋氏源流應化事蹟 券I - 魔衆拽鉞에서 L.L 4-5)

## IV. 通度寺 八相圖의 畫記의 해석49)

### 第一兜率來儀相50)

乾隆四十乙未七月二十日 兜率來儀相造成奉安于通度寺大雄殿

獨辦大施主嘉善比丘照英保體

緣化秩

證師霽雲幻寂 雲溪鴻湜 東峯論寬

誦呪 智平 三□ □□ □□

精勤天性 持殿願福

良工抱冠 敬畫華月□□ □□ □□ 有誠 曉□ 定寬 □奉 志言 興悟 戒□策寬  
學□ 大奉 副□ 靜□ 守佛 □察 □□ 定嘩 □□ 幸□ 廣□ 待□ 坦□ 若善  
肯□ 會□ 有仁 芭 · 定玉 守旻 志悅 悟守 定諄 斗眼 尙悟 廣信 戒湜 厚  
文51)

供養主秩 惠寶 體閑 通學 頓岑

奉齋 瑞澄 會卷 戒洪

49) 통도사 팔상도의 화기가 全載되어 있는 것은 홍윤식의 앞의 책 『韓國佛畫 畫記集』과 통도사 정보문화재연구원 발행 『韓國의 佛畫』의 각 권마다 화기가 실려있다.

50) 본고의 화기의 내용 중에 緣化秩, 供養主秩을 적어 놓고 있는 화기내용은 통도사 정보문화재연구원의 『韓國의 佛畫』를 참조하고 인용하였다.  
각 相의 화기는 『韓國의 佛畫』의 내용을 따랐다. 팔상도에 세로로 적혀 있는 화기를 여기서는 가로로 표기를 하고 띄어쓰기도 의미에 맞추어 하였다.

51) 통도사 팔상도를 제작한 화사에 대하여 통도사 정보박물관 한정호연구사는 『1767년 通度寺 掛佛幀고찰』에서 ‘팔상도의 화기와 통도사 전래 현판들 가운데 「八相記文」의 내용을 조합함’이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良工錄: 華月斗薰

畫師: 抱冠 定聰 內監 宇明 壬平 就澄

副畫師: 有誠 曉俄 定寬 百奉 志言 興悟 戒禹 策寬 學□ 仲一 靜坦 守仁 坦察  
定眼 守嘩 勝演 廣益 待惠 坦悟 若善 肯悟 會□ 有仁 芭一 定玉 守旻 志悅  
悟守 定諄 斗眼 尙悟 廣信 戒湜 厚文

種(鐘)頭 達性 來往最・法猛

淨桶謙讚 照演

大都前記室瑞澄

別座前住持瑞甚

都監前僧統快峻

本寺秩

山中大德竹庵照監 震聞 偵秘□□ 溢悟 德守 德藏 印聰 德徹 豐悟

性熙 字澄 禪和明湜 性云 禪德存信 和默 守佛 任哲 平彦 錦慧

時僧統政衛札

維那通政惠定

時住持通政德演

前脚

前僧統任天

前僧統學聞

前僧統戒玄

前住持希禮

前住持性證

前住持太天

前住持普冠

時記室贊・

時首僧允和

三寶覺行

佛糧都監 嘉安

佛糧典座□□

中佛糧典座□□

掌務 均・ 外典座□□ 直舍巨□

同願 施主秩 無影和默 嘉善性日 嘉善惠定 牟尙伯兩主 金大興兩主 魚山前僧

統快峻伏爲 林氏 順月保體 後排大施主 金□保體 李氏伏□□□□ 前僧

# 第一兜率來儀相





# 第一兜率來儀相



1-1 瞿曇貴姓



1-2 乘象入胎



1-3 摩耶託夢



1-4 淨飯聖王



## 1-1. 瞿曇貴姓



◀석가족의 조상이되는 瞿曇이라는 姓을 얻게된 내력을 도해했다. 석존의 수많은 전생담 중에서 이러한 도상이 팔상도 외에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도해가 되어 있는 곳은 없다. 이 그림을 택한 이유는 팔상도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瞿曇姓既入深山飛服殊異無  
能識者於甘遼園以希精舍時  
有盜賊後由過園捕盜賊者尋  
跡而至執瞿曇云言曰王令如此  
以木貫身弓射射之以為標血  
流滿地也

1-1-1

瞿曇姓既入深山飛服殊異無  
能識者於甘遼園以希精舍時  
有盜賊後由過園捕盜賊者尋  
跡而至執瞿曇云言曰王令如此  
以木貫身弓射射之以為標血  
流滿地也

1-1-1

瞿曇姓既入深山 形服殊異無能識者 於甘遮園以爲精舍 時有盜賊 從由過園 捕盜賊者 尋跡而至 執瞿曇言曰 王令如此以木貫身 弓躬射之以爲標 血流爲地也<sup>52)</sup>

- 瞿曇씨가 깊은 산으로 들어갔다<sup>53)</sup>. 형태와 복장이 특별히 달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감차원에서 정사를 짓고 (수행하고) 있을 때, 마침 도적이 어디로부터 감차원을 지나 달아났다. 도적을 잡는 사람이 자취를 찾아 왔다가 구담을 붙잡고서 ‘왕의 명령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나무로 몸을 꿰어 화살로 쏘아 표적(標的)으로 삼아서 피가 땅에 흐르게 하라’고 말하였다.<sup>54)</sup>

52) 본고에 나오는 모든 화기는 일차적으로 필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으로 찍은 화기를 좌측에 원색으로, 우측에는 흑백으로 실음을 원칙으로 하였다. 화기의 내용은 그 사진의 화기를 직접 옮겨 誤記를 줄여보려고 하였다.

각 화기마다 있는 번호는 ① 각 相의 번호 - ② 각 相안에서의 장면번호- ③ 각 장면 안에서의 화기의 순서로 하여 번호를 부여하였음을 밝힌다.

53) 『석씨원류』 瞿曇貴姓편에는 인도에는 四族姓이 있는데 刹帝利, 婆羅門, 吠舍, 戌陀羅로 앞의 찰제리와 바라문계급의 二姓을 貴姓이라고 하고 있다. 瞿曇이란 가우타마의 한역으로 그 의미는 ‘소 중의 으뜸’이라는 말이 있는 것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인도인들의 소를 神聖視하는 사고방식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석존의 姓인 가우타마도 ‘최상의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54) 文明人 「간다라 불상론」 『강좌 미술사』 21 한국미술사연구소, 2003, 12. p.21  
본생담은 부처님의 前生說話를 통하여 불교의 진리인 緣起說을 전파하고 한데 비하여 本生圖는 부처님의 전생설화를 圖相化하여 이를 통해서 불교의 진리인 연기설을 널리 이해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 도상 내용은 단적으로 말해서 연기설의 초보적인 善人善果, 惡因惡果를 쉽게 도상화한 것이어서 불교진리의 상징적인 것이다. 따라서 불교미술은 불교진리를 상징한 도상이므로, 불교의 전파에 크게 공헌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본생담 가운데 가장 많이 도상화된 것이 연등불수기본생도이다.

大瞿曇以天眼觀之小瞿  
速騰空而下也哉

1-1-2

大瞿曇以天眼觀之小瞿  
速騰空而下也哉

1-1-2

大瞿曇以天眼觀之小瞿曇處

速騰空而下也哉<sup>1)</sup>

- 대구담이 천안으로 소구담을 살피고  
속히 공중으로 올라갔다 내려온다.

大瞿曇仙以天眼觀之  
而神足未曰我徒胡大罪  
酷乃如是乎自取流血以  
泥土園持還舍左血盛於  
左甕右血盛於右甕而祝  
之曰天神有知血化者  
人却有左則成男右則  
成女因姓瞿曇氏之姓

1-1-3

大瞿曇仙以天眼觀之  
而神足未曰我徒胡大罪  
酷乃如是乎自取流血以  
泥土園持還舍左血盛於  
左甕右血盛於右甕而祝  
之曰天神有知血化者  
人却有左則成男右則  
成女因姓瞿曇氏之姓

1-1-3

大瞿曇仙以天眼觀之而 神足來曰 我徒胡大罪酷乃如是 乎因取流血以泥土圍持  
還舍 左血盛於左器 右血盛於右器 而祝之曰 天神有知血化爲人 却有左則成男  
右則成女 因姓瞿曇氏之姓

- 大瞿曇仙이 天眼으로 꿰뚫어 보고 神足으로 날아와서 말하기를 ‘우리 아  
이(제자)에게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렇게 혹독하게 하였느냐’ 하였다. 그래  
서 흐르는 피를 취하여 진흙으로 두른 채 정사로 돌아왔다. 왼쪽의 피를 왼  
쪽 그릇에 담고, 오른쪽의 것은 오른쪽 그릇에 담아 빌기를 ‘천신은 알고 있  
다. 피가 변하여 사람이 된다는 것을’ 하니 바로 좌측에는 남자가 되고, 우  
측에는 여자가 되었다. 그래서 구담씨의 성으로 성을 삼았다.<sup>55)</sup>



1-1-4



1-1-4

金園天子速還天上

-금위천자가 속히 천상으로 돌아가다.

55) 석가씨의 기원에 대하여 도해 팔상록에는 金園天子가 護明菩薩에게 復命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밝혀 놓고 있다.

‘그 선조는 甘蔗씨로서 그 자손에 雪山 남쪽 카피라성에 옮겨 산뒤로 釋迦氏로  
고치었습니다. 대대로 聖王이 나타나서 백성을 덕으로 교화하였고 현재에는 獅  
子頰王의 아드님 淨飯王이 인민을 통치하옵는데 왕후는 고리성주인 아누석가왕  
의 딸 마야부인이온데 매우 현명하고 단정하신 분이옵니다. 그를 부모로 정하심  
이 어떠 하오리까?’

도해팔상록 p.p76-77

이렇게 하여 男, 女가 생겨나고 그로 인하여 瞿曇 혹은 甘蔗씨라 名하게 되고  
師子頰王에 이르러 네명이 태자가 있었는데 淨飯, 白飯, 斛飯, 甘露飯이라고 하  
였는데 이름에 공통적으로 飯을 쓰고 있는데 이는 석가족이 농경민족이라는 증  
거라고 여겨지고 있다.

## 1-2. 乘象入胎



護明菩薩從兜率降王宮時先命金闍天子遍見閻浮提周察降生之處而返命即時  
胎中諸天亦各入胎中願為  
從屬助佛揚化是時即周  
昭王十二年癸丑七月十五日也

1-2-1

護明菩薩從兜率降王宮時先命金闍天子遍見閻浮提周察降生之處而返命即時  
億諸夫一時音樂六種振  
動前驅後擁而下入摩耶  
胎中諸天亦各入胎中願為  
從屬助佛揚化是時即周  
昭王十二年癸丑七月十五日也

1-2-1

護明菩薩從兜率降王宮時 先命金闍天子 遍見閻浮提周察降生之處而返命 即時

兜率九十九億諸天一時音樂 六種振動 前驅後擁 而下入摩耶胎中 諸天亦各入胎中願爲從屬助佛揚化是卽周昭王十二年癸丑七月十五日也

- 護明菩薩이 도솔천에서 왕궁에 하강하기에 앞서 금위천자에게 명하여 閻浮提<sup>56)</sup>를 두루 보고 하강 할 만한 곳을 두루 살펴라 하니, (淨飯王家의 摩耶宮임을) 돌아와 복명하였다. 즉시 도솔천의 99억 諸天이 일시에 음악으로 六種<sup>57)</sup>이 진동하고, 앞에서 물고 뒤에서 옹호하여 마야부인의 태중에 하강하여 들게 되었다. 제천 역시 각각 마야부인의 태중에 들어가 종속이 되어 부처님을 도와 양화하기를 원하였다. 이때가 周나라 昭王 12년 癸丑 7월 15일이었다.<sup>58)</sup>

---

56) 閻浮提 - 수미산의 남방에 있는 대륙. 본래는 印度의 땅을 가리켰던 것이지만, 후에는 이 인간세계를 일컫게 되었다. 현실의 인간세계. 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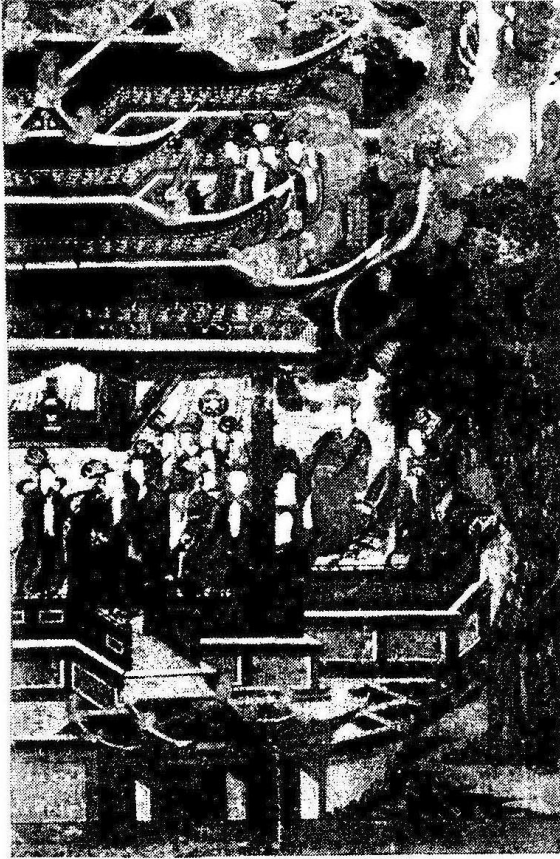
57) 六種을 六入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만물을 성립시킨 만유의 본체인 근본요소. 지대,수대,화대,풍대,공대,식대. 이 여섯가지는 널리 차있는 것이기 때문에 大라고 함. - 吉祥 編著 『불교대사전』 흥법원,2001.

58) 일생보처보살로서의 호명보살

일생보처보살 - 단지 한 생애 사이에서만 이 방황하는 생사의 세계에 구속되는 것 뿐으로 다음 생애에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지위. 다음에 태어날 때에는 부처로 태어나는 것이 약속되어 있다. 一生을 지나면 불타의 위(位處)를 도와야 할 자. 보살로서의 최고의 자리를 말한다.

### 1-3. 摩耶託夢



◀ 摩耶宮中 人胎殿에 비스듬이 앉아있는 摩耶婦人 과 천상에서 내려오는 瑞雲이 연결하여 人胎하였음을 도해하였으며 천상에서 수많은 제천, 권속들이 입태하는 보살을 봉공하기 위하여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고 있다



1-3-1



1-3-1

-보살이(마야부인의)태중에 들어간뒤 제천권속들이 늘 따라다니며 받들어 모시고 궁중의 시녀들이 늘 따라다니고 즐겁게 해드리며 곁을 떠나지 않았다.



#### 1-4. 淨飯王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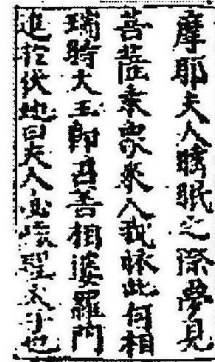


▲ 마야부인이 정반왕에게 태몽을 고하자 정반왕이 바라문을 불러  
해몽하게 하자 마야부인이 𑖦太子를 회임한 꿈이라고 아뢰고 있다.





1-4-1



1-4-1

摩耶夫人睡眠之際夢見菩薩乘象來入我懷 此何相瑞時 大王卽召善相婆羅門 進於伏地曰 夫人必懷聖太子也

-마야부인이 수면중에 보살이 코끼리를 타고 자기의 품 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니, 이 무슨 相이 이렇게 상서로운가? 대왕이 곧 善相婆羅門<sup>59)</sup>을 부르니 나아가 엎드려 말하기를 ‘마야부인에게서 틀림없이 聖太子를 懷妊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淨飯王宮 (건물의 편액)

-정반왕궁

敦化門<sup>60)</sup> (건물의 편액)- 돈화문

59) 善相 - 점을 잘 치는 이.

婆羅門 - 司祭者. 인도에 있어서 四姓중에 최고의 자. 승려 계급.

善相婆羅門을 불교사전에서는 선상바라문을 실달태자의 관상을 보았던 선인의 이름. 즉 阿私仙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바라문이 점을 치는 두 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첫째는 마야부인이 흰 코끼리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었을 때와 실달태자가 태어난 후에 립비니동산에서 환궁하였을 때인데 점을 친 후에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서는 서로 다른 이로 생각된다.

60) 通度寺의 八相圖보다 50년 전에 그려진 송광사의 팔상도에는 당시 서울에 있었던 돈화문을 그려 놓은 것이 없으나 통도사의 팔상도에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팔상도를 그린 화사들이 나름대로 우리의 팔상도를 그리려고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 第二 毘藍降生相

乾隆四十乙未年七月二十日毘藍降生造成奉安于通度寺大雄殿

獨辦大施主比丘

嘉善詩僧統偉察

同願施主□還伏爲

亡師坦岑靈駕

後 排大施主有定伏爲

亡師六平靈駕

喪氏伏爲亡夫金進

成靈駕

緣化秩

證明 雲溪鴻湜

山中大德

竹岩照鑑

湓悟

誦呪 智平

瑞輝

精勤 天性

持殿 願福

良工 抱冠

有誠

奉齋 瑞澄

戒弘

供養主 道學

取性

淨桶 謹贊

鍾頭 會卷

都監 快錢

## 第二 毘藍降生相



## 2-1. 樹下誕生



◀뫼비니동산에서 마야부인이 무우수나무가지로 잡고 오른쪽옆구리에서 태자가 태어나자 시녀들이 받들고, 때맞추어 제석천이 교시가의를 봉헌하며 난간밖에서는 제천, 사대천왕이 옹호하고 있다.



2-1-1



2-1-1

太子託胎將滿十月 夫人與諸姝女遊於園中至無優樹下 柔軟低垂 夫人即舉右手攀彼樹枝遂生太子 放大明光 即時諸天世間悉皆遍照 時帝釋以幡尸迦衣奉之則此時即周昭王二十四年甲寅四月初八日也 沐浴才訖 周行七步 日顧四方 指天指地云天上天下惟我獨尊 時十方大地六種振動 放大光明貫太微宮 昭王問群臣 太史蘇由奏曰 西方有聖人生 却後千季教法來此矣 王令鐫石埋於南郊誌之後日相考也

-태자가 태중에 맡겨져 열 달을 다 채워가니, 마야부인이 여러 채녀들과 동

산에서 놀다가 無優樹나무 아래에 이르렀을 때, 가지가 부드럽게 아래로 드러워지니 부인이 곧 오른손을 들어 그 나뭇가지를 잡고서 드디어 태자를 낳았다. 대광명을 받하니 즉시 제천세간에 모두 다 두루 비추이고 때맞추어 제석이 교시가의를 바치니, 이때가 주나라 소왕 24년 갑인 4월 초8일이었다. 목욕이 막 끝 났을 때 주위 7보를 걷고 눈으로 사방을 돌아보며 하늘을 가르키고 땅을 가리키며 말하기를 ‘천상천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고 하였다. 이때에 서방대지에 육종이 진동하고 대광명을 내어 太微宮을 비추었다. 昭王이 여러 신하들에게 까닭을 물었더니, 태사인 蘇由가 아뢰기를 ‘서방에 성인이 태어나 곧 뒤에 천년의 교법이 여기에 이를 것입니다’라 하였다. 왕은 돌에 새겨 남쪽 교외에 묻어 표시하여 뒷날 상고하도록 하였다.<sup>61)</sup>



2-1-3



2-1-3

十方諸天眷屬等 各持物色 供養太子

- 十方에서 온 諸天과 그 권속들이 각자  
物色을 가지고 와 태자에게 공양했다.

61) 오고산 외 편역 『도해팔상록』 보련각, 1990. p.91

석존의 탄생설화를 기술하여 놓은 경전은 많으며 시기적으로 보면 「수행본기경」이 가장 원시적인 것이고 다음에 「태자서음경」, 그 다음에 「과거현재인과경」, 「불본행집경」, 그 다음에 「보요경」, 「방광대장엄경」으로 전개되었다. 통도사 팔상도의 모본이 된 『釋氏源流應化事蹟』에는 本行經을 所依經典으로 밝히고 있다.

## 2-2. 九龍灌浴



◀ 태자가 태어난 후 九龍이 관욕을 시키고 태자는 사망 칠보 주행후 손을 들어 하늘과 땅을 가르키고 나서 唯我獨尊이라고 獅子吼를 하고 있다.



2-2-1



2-2-1

天女等各持香水

- 천녀들이 각자 향수를 가지고 오다.



2-2-2



2-2-2

此光貫太微宮

- 이 빛이 태미궁을 비추었다.

或曰覆弊魔宮

- 어떤 이는 마궁을 덮어 가렸다고 하였다.



2-2-3



2-2-3

溫井自出

- 따뜻한 물이 저절로 나오다.



2-2-4



2-2-4

冷井自出

- 차거운 물이 저절로 나오다.



2-2-5



2-2-5

指天指地

- 하늘을 가르키고 땅을 가르키다.





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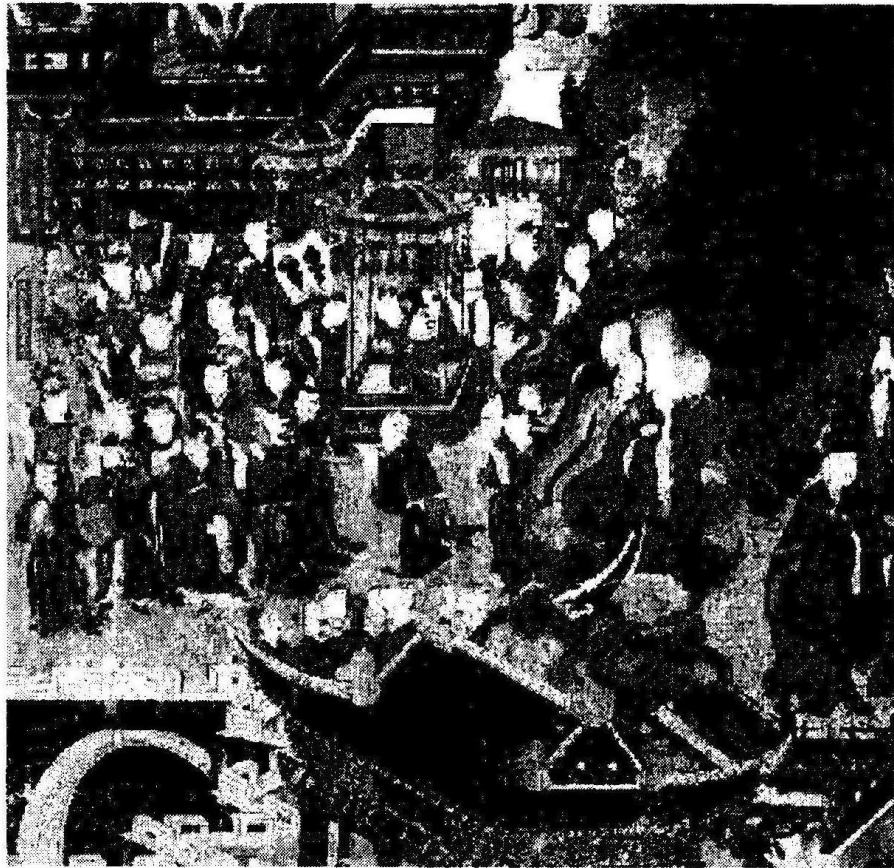


2-2-6

惟我獨尊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 2-3. 從闕還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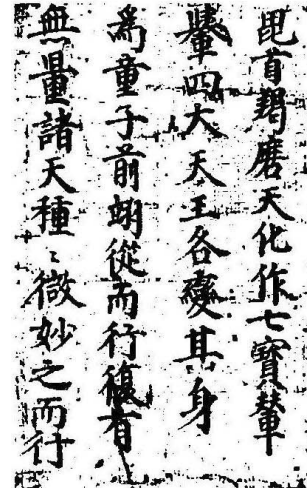


▲ 룸비니동산에서 태어난 태자가 비수갈마천이 만들고 사천왕이 옹호하는  
 箬輦(수레)를 타고 성곽 너머로 많은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정반왕궁으로 향하고 있다.





2-3-1



2-3-1

毘首羯磨天化作七寶輦輦 四大天王各變其身爲童子 前翊從而行 復有無量諸天  
種種微妙之而行

- 비수갈마천이 칠보로 꾸민 연여(輦輦-수레)로 변하고, 사대천왕이 몸을  
변화시켜 동자가 되어 (태자의) 앞에서 도우며 따라다니다. 또 무량제천 모  
두가 미묘하게 옹호하여 함께 행하였다.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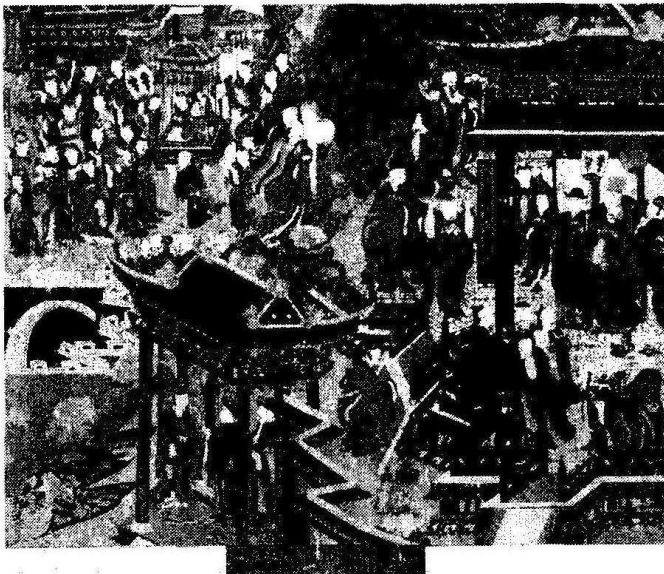


2-3-2

從園中還城 觀者如雲

- 룸비니 동산에서 城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보려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다.

#### 2-4. 仙人占相



◀ 아시타선인이 태자의 상호를 보고  
世間에 있으면 轉輪聖王이 되고, 출  
가하면 天人師인 부처님이 되어 大法  
輪을 굴릴것이라 예언 한다.

阿私陀仙等求見太子飯王出現之仙衆抱慰太子而悲泣不已王問太子何不祥仙等曰太子具足三十二相八十種好在世即爲轉輪聖王出家即爲天人師轉大法輪我等年老不久命終不聞說法故自傷悲矣騰空而去也

2-4-1

阿私陀仙等求見太子飯王出現之仙衆抱慰太子而悲泣不已王問太子何不祥仙等曰太子具足三十二相八十種好在世即爲轉輪聖王出家即爲天人師轉大法輪我等年老不久命終不聞說法故自傷悲矣騰空而去也

2-4-1

阿私陀仙衆抱慰太子 而悲泣不已 王問太子何不祥 仙等曰 太子具足三十二相八十種好 在世即爲轉輪聖王 出家即爲天人師轉大法輪 我等年老 不久命終 不聞說法 故自傷悲矣 騰空而去也

- 阿私陀 仙人등이 태자 뵈옵기를 청하여 정반왕이 나가보니, 아시타 선인 무리가 태자를 에워싸고 슬프게 울며 그치지 않았다. 정반왕이 '태자에게 무슨 상서롭지 않은 일이 있느냐' 묻자 선인이 답하기를 '태자는 32상 80종호를具足하고 있어 세간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 天人師가 되어 大法輪을 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나이가 많아 머지 않아 목숨이 다하여 태자의 설법을 듣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저절로 마음이 아프고 슬픔니다'라고 말하고는 공중으로 올라 가버렸다.

淨飯王殿 - 정반왕전

### 第三 四門遊觀相

乾隆四十年乙未七月二十日四門遊觀相造成奉安于通度寺大雄殿

獨辦大施主嘉善熙英伏爲

亡父李仁□兩主靈駕招生極樂土之願

同願施主秩

施主嘉善李□ 斤阿只保體比丘大□爲

亡父□□金上王大加後□□□金七尙兩主保體

緣化秩

證師 齊雲幻寂

誦呪 安 · 眼性

持殿 泰如

□□□□

□誠 任平 富 · 學演

供養主 體閑 生曄

奉齋 瑞澄 戒洪

鐘頭 會卷 德澄

都□ □□

別座 瑞湛

化主 儀 ·

本寺秩

時僧統嘉善偉禮

維那嘉善慧定

時住持通政德演

前寺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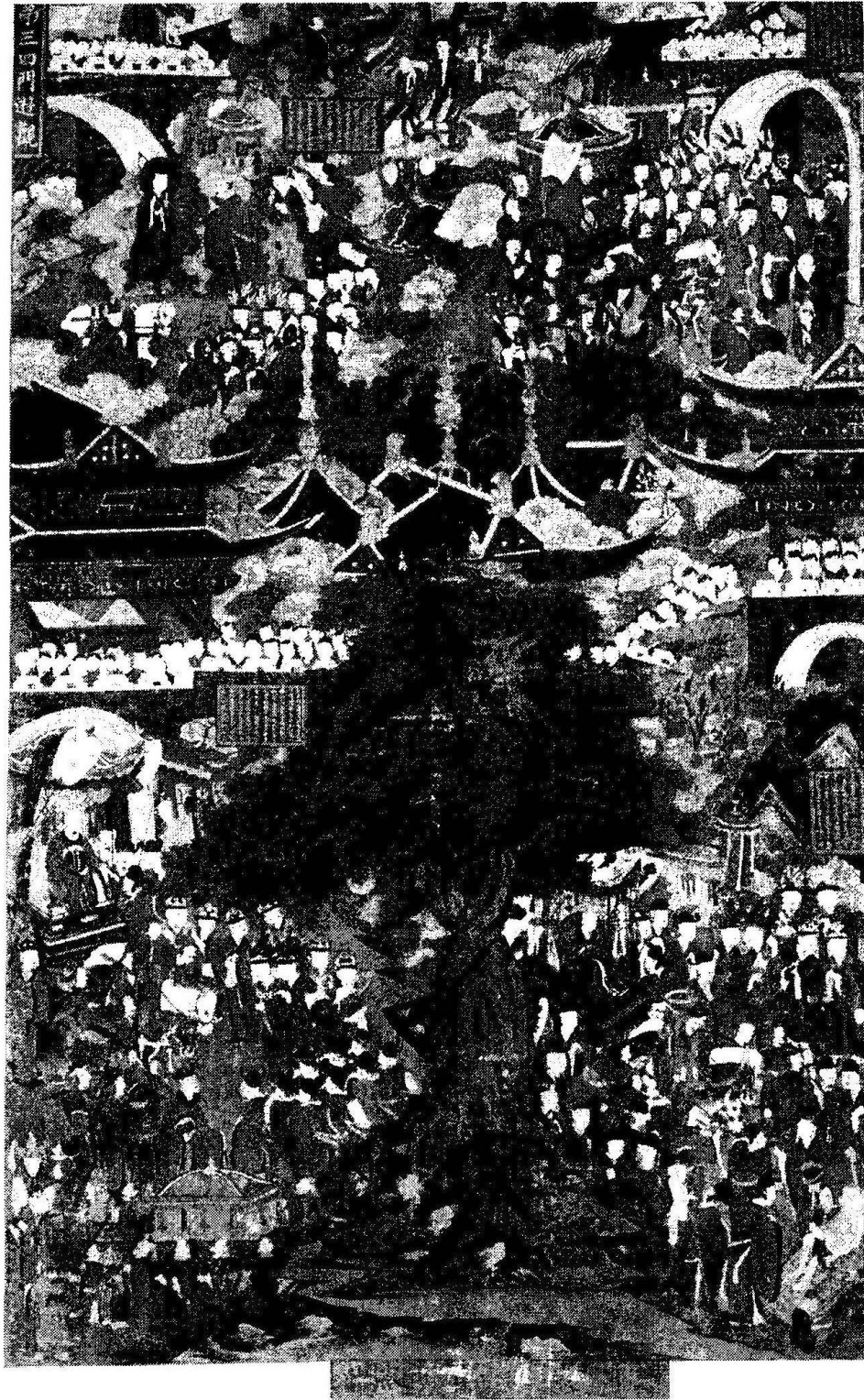
前僧統太天

前僧統學聞

時記 □贊 ·

首僧 □和 三寶 閣軒

### 第三 四門遊觀相



### 第三 四門遊觀相





### 3-1. 路逢老人



◀ 동문에서 태자를 출가시키기 위하여 淨居人이 변한 노인을 만나고 늙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太子遊東門佐瓶天子令太子欲爲  
出家化作老人於太子前順路而行太  
子問曰是何人馭者白言此是老人復  
問何者名老人答曰衰老逼迫諸根漸  
敗其命將終是名老也復問我亦當此  
否答曰貴賤雖殊生老病死何可殊也  
太子聞之還宮思惟不老生死而已

3-1-1

太子遊東門佐瓶天子令太子欲爲  
出家化作老人於太子前順路而行太  
子問曰是何人馭者白言此是老人復  
問何者名老人答曰衰老逼迫諸根漸  
敗其命將終是名老也復問我亦當此  
否答曰貴賤雖殊生老病死何可殊也  
太子聞之還宮思惟不老生死而已

3-1-1

太子遊東門 作瓶天子令太子欲爲出家 化作老人 於太子前順路而行 太子問曰 是何人 馭者白言此是老人 復問何者名老人 答曰 衰老逼迫 諸根漸敗 其命將終 是名老也 復問我亦當此否 答曰貴賤雖殊 生老病死何可殊也 太子聞之 還宮思 惟不老生死而已

- 태자가 동문으로 나갔을 때에 작병천자가 태자로 하여금 출가하도록 하 기 위하여 노인으로 변하였다. 태자가 가는 길 앞에 있어 태자가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물었다. 마부가 아뢰기를 ‘이것이 늙은이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다시 ‘어떤 사람을 늙은이라 하는가’라고 물었다. 답하기를 ‘노쇠가 닥치어 모든 근기가 점차 약해지고 그 목숨이 장차 끝나려는 것을 늙음이라 고 합니다’하였다. 다시 ‘나도 이렇게 된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답하기를 ‘귀천은 비록 다르지만 생로병사가 어찌 다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태자는 이 말을 듣고 환궁해서는 늙지 않음과 삶과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 각할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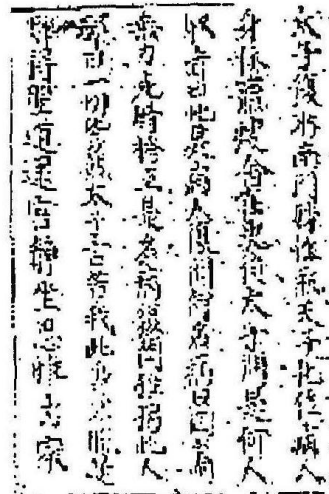
### 3-2. 道見病臥



◀ 태자가 남문(南門)으로 나가서 병든이를 만나는장면. 성곽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태자의 행차를 지켜보고있고 이 장면은 화면에 활기와 생동감을 주고있다.



3-2-1



3-2-1

太子復游南門 時作瓶天子化作病人 身體羸瘦 命在與須 太子問是何人 馭者曰 此是病人 復問何名病 曰困篤無力 死時將至 是名病 復問惟獨此人耶 曰一切皆然 太子言若我此身不脫是 難得聖道 還宮靜坐 思惟出家

태자가 다시 남문<sup>62)</sup>으로 나갔을 때 작병천자가 병자로 변하였다. 몸은 파리하고 말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었다. 태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자 마부는 ‘이 사람은 병이 든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무엇을 병이라고 하는가’라고 묻자 ‘피곤하고 지쳐 힘이 없어 죽을 때가 장차 이른 것을 병이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다시 ‘오직 이 사람만이다’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만약 나의 이 몸이 이것(病)을 벗어나지 않으면 성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환궁하여 조용히 앉아서 오직 출가만을 깊이 생각한다.

62) 남문을 도해하면서 위에는 ‘崇禮門’으로 아래에는 ‘南大門’으로 현관을 달아 놓았다. 이는 숭례문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화사들의 들은대로, 혹은 추측하여 그렸음을 보여주고있다.

### 3-3. 路視死屍



▲ 西門에서 화면 아래의 장례 행렬을 만난 후 태자는 죽음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된다.

太子游西門作瓶天子化作世間殯葬之法令諸天人擔取而去太子怪而問之馭者報言彼死人忘父子之有親捨平生之食着盡命爲死死人親族以爲殯葬次擔之去也太子復問我亦如是否馭者曰太子今雖尊極貴未免此死也太子聞已慘惻不已

3-3-1

太子游西門作瓶天子化作世間殯葬之法令諸天人擔取而去太子怪而問之馭者報言彼死人忘父子之有親捨平生之食着盡命爲死死人親族以爲殯葬次擔之去也太子復問我亦如是否馭者曰太子今雖尊極貴未免此死也太子聞已慘惻不已

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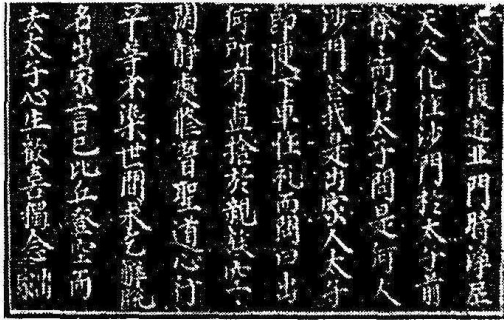
太子游西門 作瓶天子化作世間殯葬之法 令諸天人擔取而去 太子怪而問之 馭者報言 彼死人忘父子之有親 捨平生之食着 盡命爲死 死人親族以爲殯葬 次擔之去也 太子復問 我亦如是否 馭者曰 太子今雖尊極貴 未免此死也 太子聞已慘惻不已

- 태자가 서문(西門)으로 나갔을 때 작병천자가 세간의 장례법을 만들어 제천인에게 메고 가도록 하였다. 태자가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으니 마부가 아뢰기를 '저 죽은 사람은 부자유친(父子有親)을 잊고 평생에 탐욕과 집착을 버리고 목숨이 다하여 죽게 되니 죽은 사람의 친족들이 장례를 치르고자 메고 가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다시 '나 역시 이러한가'라고 묻자 마부가 '태자께서 지금은 더없이 존귀하오나 이러한 죽음은 면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태자가 이를 듣고서는 참담함과 슬픔을 그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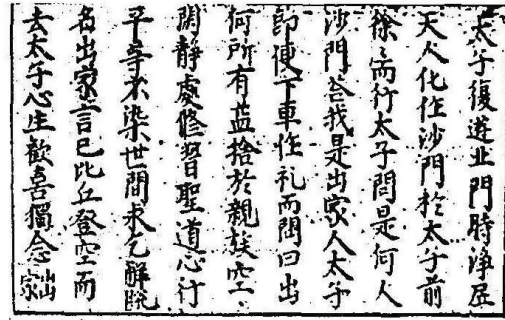
### 3-4. 得遇沙門



▲ 북문에서 沙門을 만나 말에서 내려 예를 표하고 출가의 이익을 물어 출가에 대하여 깊이 사색하게 된다. 태자 위로는 사문으로 변했던 정거천이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3-4-1



3-4-1

太子復遊北門 時淨居天人化作沙門 於太子前徐而行 太子問 是何人 沙門答 我是出家人 太子即便下車 作禮而問曰 出何所有益 捨於親族 空閑靜處 修習聖道 心行平等 不染世間 求乞解脫 名出家言已比丘登空而去 太子心生歡喜 獨念出家

- 태자가 다시 북문으로 나갔을 때 정거천인이 사문으로 변하여 태자 앞을 천천히 지나갔다. 태자가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자 사문은 ‘저는 출가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자 태자는 즉시 마차에서 내려 예를 올리면서 묻기를 ‘출가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사문은 ‘친족을 떠나 텅비고 한가하며 고요한 곳에서 성도를 닦아 익히며, 마음으로 평등을 실천하고 세간에 물들지 않으며 해탈을 구하는 것을 출가라 합니다’라고 답하였다. 말이 끝나자 비구는 허공으로 올라 가버렸다. 태자의 마음에 환희가 생겨 오직 출가만 생각하게 되었다.